



예술  
날개



비매품/무료  
03800  
9 791196 794828  
ISBN 979-11-967948-2-8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주최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160g 아르떼종이위에  
점자만표시



\* 앞페이지  
점자내용과  
동일합니다



## “모두를 위한 예술날개”

장애·비장애를 넘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업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 일환으로 발간한 작품집  
‘문학으로 만나는 예술날개’입니다.

‘문학으로 만나는 예술날개’는 시·동화·수필·소설 등  
다양한 장르 장애인 예술인 10명의 미발표 창작 작품을 담았습니다.

장애인 예술인들의 작품세계와 포용의 예술이 지닌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해당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책자의 모든 내용을  
'보이스아이코드(VoiceEye Code)'로 담아 정보 접근의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 '보이스아이코드'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인쇄물 내용을 음성·번역해주는 2차원 바코드 서비스로 모든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 스마트폰 어플 '폰마킹' 다운로드 ➔ 코드스캔 ➔ 음성·번역



## 시

### 강경화

무화과	8
자벌레	9
도마	10
홀리스	11
전자레인지	12

### 김형국

하룻길	20
교련선생님	21
물컵	22
사람입니다	23
권리찾기	24

### 박기종

게맛살	32
마스크	33
자전거 바퀴	34
코로나 19	35
보석 뽑기	36

### 김경원

12월의 기도	14
불의 의미	15
너는 나에게	16
석공이 나에게	17
꽃처럼	18

### 남영화

그 꽃	26
눈물의 동백꽃	27
마음결	28
사소한 사랑	29
자문자답	30

### 정향기

그저 좋았습니다	38
어떤 하루	39
바이러스	40
먼 길	41
아버지의 등	42



동화	<b>박진희</b> 수정리와 민달팽이	46
수필	<b>노대전</b> 나는 가족이 보물이다 나는 인생 기술자	58 64
소설	<b>박영진</b> 산책	76
	<b>장수영</b> 여인들의 수다클럽	94
참여작가 소감	강경화 김경원 김형국 남영화 박기종 정향기 박진희 노대전 박영진 장수영	112
해설	<b>강경호</b> 희망과 치유의 문학	114



“딱지가 앉아야 될 곳은/ 늘 햇살로 따금거렸다”

-강경화 「도마」 중에서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쓸모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는 없어…”

-김경원 「석공이 나에게」 중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무엇인가/ 지금도 아픕니다”

-김형국 「교련 선생님」 중에서

“어느 길에 쌓였을 말들이/ 살아 기억하는 시간”

-남영화 「자문자답」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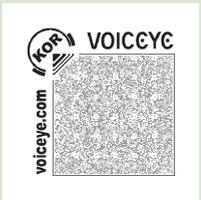
“열쇠고리와 예쁜 머리핀/ 이번에는 보석을 뽑고 싶다”

-박기중 「보석 뽑기」 중에서

“내 입에 고기 한 점 넣어주시며 흐뭇해하시는 아버지를 뵈며/

또 한 번 무너지는 가슴”

-정향기 「아버지의 등」 중에서



## 강경화

저는 뇌병변장애인으로 대학 동아리에서 시 쓰기를 시작하였고,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도 전공하였습니다. 글이 탁월하지는 못해도 꾸준히 쓰다 보니 보답처럼 《시조시학》에서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시집도 펴냈습니다. 그리고 무등시조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율격동인, 광주문인협회 등 문학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 대표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나의 글이 누군가의 삶에서는 가슴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로 만드는 예술단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 무화과

강경화

하얀 눈물 머금은 채 불거지는 열매라서  
숨이 차도록 핀다거나 적막에도 흔들림 없어

꽃인 줄  
알지 못했다

꺾으면 지고 마는

혼자서 피고피어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붙어진 가슴  
베인 듯 열어  
수줍게 만개하는

꽃이다

한 사람 맘 설레도록  
휘날리진 못해도.



# 자벌레

강경화

참나무의 까마득한 우듬질 향해 자벌레 간다

딱딱했을 옹이의 시간까지 읽으며 간다

마음에 닿은 글귀에 그어지는 초록색 밑줄

생각이 필요할 땐 서슴없이 멈춰 서서

더듬더듬

하늘 한번

바람 한번

보고 간다

끝까지 다 읽으려면

아직도

한참이다

꿈  
함으로 만나고 예술세계  
자벌레

# 도마

강경화

둥글게 베인 상처를 가진 적이 없다  
살점 떨어진 자리에 새살 돋은 적도 없다

딱지가 앉아야 될 곳은  
늘 햇살로 따끔거린다

눈물을 받는 일은  
상처 하나 키우는 일

재단하듯 잘려지는  
삶의 순간을 받아내는 일

날마다  
몸 얼얼하도록  
눈물을 받는다



# 홈리스

강경화

박스처럼 뻗뻗해진 무릎을 끌어안고서

더운 입김 끌어올려 선꿈이 데워질 때

바로 옆

잠들지 못한

신문 한 조각

또 들썩인다

꿈  
만  
나  
는  
예  
속  
년  
개  
시  
를  
들  
어  
들

# 전자레인지

강경화

네 품에선 현기증처럼  
세포들이 깨어난다

경직된 몸은  
따뜻해지고

절정에 이른  
그 순간

조리가 끝났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 12월의 기도

김경원

12월의 기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하이얀 눈이 내 머리 위에 스쳐요

내 마음도 눈처럼 하얗게  
그대 마음에 닿기를 바래요

오늘 하루는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다 덮어주길 바래요

내 맘속에 빛나는 별빛처럼  
그대 마음도 내 마음처럼 빛나길 바래요

하늘이 주신 축복의 눈,  
오늘 하루 그 눈을 맞으며

모두가 행복하길...  
오늘밤 두 손 모아 기도해요



# 너는 나에게

김경원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아도  
그 별들 중에 너는 나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고

땅에 보석이 굉장히 많은데  
너는 그 보석 중에  
가장 존귀한 보석이야



# 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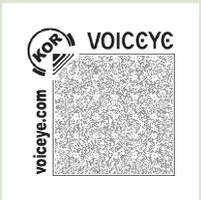
김경원

괜찮아...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때론 힘들고 아프고  
또 고될지도 몰라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  
삶이란 꽃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삶이란 꽃처럼 져기도 하며  
삶이란 꽃처럼 곱고 예쁘게 피기도 하지

너라는 꽃도  
흔들리고 져기도 하겠지만  
예쁘게 피기위한 너의 삶의  
한 과정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를...



## 김형국

저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교시절부터 문학에 의지하며 시와 수필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 시집 『행복한 사람』을 펴냈고, 현재 (사)실로암사람들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교육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글을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한다면 행복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문학으로 만드는 예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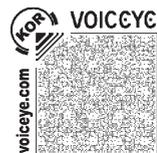
# 하룻길

김형국

인권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왔습니다.  
인권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도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실내화를 신발로 갈아신고  
소리를 지르고  
짜꿍과 함께 걸으며  
마중 나오는 엄마

등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랬지라며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 교련선생님

김형국

너 빠져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쉬고 있어

총들고 싶다

너 힘들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너 다치잖아

이십 오년이라는 긴시간이 흘렀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무엇인가  
지금도 아픕니다

꿈  
만남  
그날  
예술  
꿈  
만남  
그날  
예술  
꿈

# 물컵

김형국

물이 가득찬 컵 앞에서  
작아집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없고  
두 손으로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며  
온 힘을 다하여 대합니다.

어쩌면,  
평생 움츠리며  
살아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 사람입니다

김형국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한다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사지가 흔들린다고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손이 떨려서  
입으로 컵을 잡아 물을 먹는데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모습이 다를 뿐,  
모습이 다르다고 하여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 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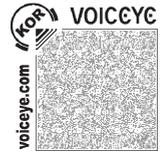
김형국

수창초등학교에  
장애인권교육을 하러 왔다.

한 학생이  
“말이 이상하다”라고  
말한다.

이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나의 목소리가 특이하다.



## 남영화

저는 현재 집에서 누워 있는 자세로 모든 생활을 하며, 단순한 기쁨과 감사로 일상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맘처럼 되지 않아 다시!를 거듭하는 외상 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김용목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 머리를 감고 방에 들어오던 참이라 오전부터 몸이 무거워졌다며 투덜대던 것도 잠시, 단숨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자주 잊는 것, 즉 삶을 살아가다보면 꼭 아프고 우울하지만은 않고 이렇게 아주 반가운 선물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내 시를 꺼내보일 수 있음에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제 글들이 설익고 풋내가 날지,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입에 웃음을 그리며 한 편 한 편의 시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집으로 『내 마음의 에밀레종』이 있습니다.

# 그 꽃

남영화

의연하게 피어난  
그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눈 감은 어제의 기억이  
등 떠미는 그림자에 발 담근다

다독일 틈도 없이  
마음을 썬쳐버리고

가녀린 그대인 줄 알았으므로  
긴가민가한 어둠 덕분에  
이맛살을 찌푸린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추억은  
흠흠, 인기척도 없이 얼굴을 내민다



## 눈물의 동백꽃

남영화

내 슬픔을 푹 푹 털구는  
길이 예쁜 걸 무어라 이야기하오

두 눈을 찡긋 감을 수 있는  
찰나의 웃음을 품에 챙겨 들고

특이한 다름을 쏘아보며  
입김을 불어도 흩어지지 않는  
어려운 사람

곱지 않게 옥여넣은 설움  
곁에 있어 위로가 되는  
착한 사람

수선스러운 그대들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다오  
유치하게도.

# 마음결

남영화

이른 아침을 반기지 못하고  
비뚜름하게 내리뜬 눈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으므로  
제 탓을 하며  
질끈 입술을 깨물고

대체 무엇으로 때렸기에  
한적한 마음에 던져진  
기억의 결이 커져가는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면  
방마다 환히 불을 켜 놓고

아마도 나는

마음을,  
임을 잊은 마음을 맞았나보다



# 사소한 사랑

남영화

나른한 빨래들이 휘날리고  
귀하게 속삭이는 눈빛  
어떤 마음을 더 보이리이까

괜찮아  
믿을게  
당연한 침묵으로  
살아가는 틈

계절이 지나다니고  
섬세하게 그려놓은 길목에서

해질녘 그대가 그리워하는 것은  
두 팔 벌려 안아주는 품  
아무것도 아닌 척 할 수 있으리이까

꿈  
만나는  
예  
결  
그  
는  
가  
게

## 자문자답

남영화

어떻게 할까나  
—그러게나 말이다

습관처럼 흘리는 긴 숨  
끝에 햇빛이 떨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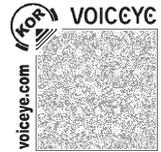
어느 길에 쌓였을 말들이  
살아 기억하는 시간

깨어있는 내가  
나를 껴안아주려는데  
잠이 고프든 눈은 자꾸만 감기네

어떻게 할까나  
— 그러게나 말이다

오만한 얼굴을 가린 틈새로  
안쓰럽게 쓰러진 나뭇가지

흩어진 꽃잎을 쓸어담아  
시들지 않은 마음을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네



## 박기종

저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고교시절 힘든 삶을 세상과 소통하고자 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의 향아리』라는 시집을 발간하였고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합격하여 본격적으로 문학을 배웠습니다.

저는 조용한 성격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이 나의 친구여서 그것들과 마음을 통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마음의 향아리』, 『무지개와 날개』, 『장미꽃 비누』, 『박기종 시화집』, 『스물여덟 살에 꾸는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두렵지만 좋은 시와 함께 소통하여 잘 극복하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게맛살

박기종

게맛살은 걸어가고 있다.  
하얀 티와 빨간 치마를 입고  
김밥과 만나기로 약속한 게맛살  
노란 단무지는 게맛살을 반가워하고  
초록 시금치는 햄을 초대하여  
검은 돛자리 위에서 신나게 노래하며  
멋진 춤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 받지 못한 계란은 슬피 울며  
팔팔 끓은 물속에서 라면과 함께 친구하자며  
서로 부둥켜안고 춤을 춘다.  
게맛살은 같이 놀자고 애원하면서  
김밥은 게맛살이 들어가야 맛있지,  
하얀 티와 빨간 치마를 입은 게맛살

## 마스크

박기종

마스크는 입의 옷이다.  
빨간 입술을 감추고 절반 가린 얼굴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마스크 패션을 자랑 하구나

세계 여러 나라 마스크는 다양 하다  
보석달린 마스크, 꽃으로 장식한 마스크  
수놓은 마스크, 망사 마스크, 삼베 마스크  
멋진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을 막아준다.

하얀 이는 세상과 단절하여 몸부림을 치며  
입술은 색, 색깔 립스틱을 바르지 못해  
울부짖고 아름다운 미소를 그리워하는구나.

# 자전거 바퀴

박기종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  
어디로 굴러가고 있을까?  
아파트 근처와 공원 쪽을 돌고 있구나  
시원한 바람은 마음이 탁, 트이고  
하얀 구름은 자전거바퀴를 따라 온다  
날카로운 유리파편은 조심해야 돼  
바퀴가 빵구나면 굴러 갈 수 없잖아  
둥글 둥글 굴러가는 두 바퀴  
행복을 만드는 두 바퀴의 사랑  
오늘도 자전거는 쉬지 않고 달린다.  
피곤한 하루 먼 길을 돌았더니 지쳤군  
길잡이 자전거



## 코로나 19

박기종

무서운 코로나  
우리 곁에 있지 말고 사라져  
감염은 싫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이겨낼거야.

코로나 19 때문에 서로 거리 두고  
경제적으로 힘들며 재택근무로  
사람과 소통 부재이며 멈춤으로  
마음까지 멈추어 질까봐, 두렵다.

마스크를 턱스크 팔스크 하지 말고  
착용 잘하여 서로 배려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여  
빨리 백신 개발하여 코로나 19 물리치자.  
코로나 19 꼭 이겨내어 완전 박멸하자.

국민  
함께  
이겨내  
자

# 보석 뽑기

박기종

문구점 앞 뽑기

동전을 넣어서 뽑기를 한다.

열쇠고리와 예쁜 머리핀

이번에는 보석을 뽑고 싶다.

빨간색 보석, 보라색 보석, 핑크색 보석,

사랑과 행복, 인생의 꽃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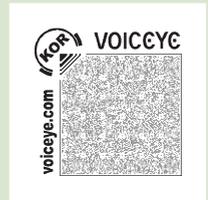
뽑기는 상상과 추억 미래의 꿈

빨간 보석은 목걸이와 귀걸이

보라 보석은 반지와 팔찌

핑크 보석은 사랑과 행복

미래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을까?



## 정향기

저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인으로 거주시설에서 30여년을 생활한 후 자립 생활을 한지 15년차입니다.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시집을 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꿈을 접고 지금은 취미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을 넘어선 이 시기에 자신을 위로하는 글을 씁니다. 어릴 적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했다면 이제는 꾸밈없이 써내려갑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변화가 일상의 제약에 자칫 우울해질 수 있으나 글을 쓰노라면 제약이 더없는 자유로 다가옵니다.

# 그저 좋았습니다

정향기

상큼한 봄별에  
곱게 그을린 뺨을  
스치는 실바람의 느낌이  
그저 좋았습니다.

한여름 땀별에  
썩썩 갈라진 대지를  
적시는 소나기의 느낌이  
그저 좋았습니다.

초가을 논두렁에  
겸손히 숙인 고개를  
쓰다듬는 포근한 느낌이  
그저 좋았습니다.

한 겨울 밤이 새도록  
들려오던 설레임에  
마당 가득 내려앉은  
솜사탕의 달콤한 느낌이  
그저 좋았습니다.

## 어떤 하루

정향기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이  
흘어진 기억을 깨우고  
가슴 한편에 묻어 둔  
허상의 조각들이 꿈틀댄다.

언제인가  
거울에 비친  
뒤틀어진 내 모습이  
너무 싫어 깨어버린  
허상의 잔재가 꿈틀댄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장애인  
또 하나의 내 이름이다.  
그래서 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지도,  
아니 그랬었다.

어쩔 숨기고 싶었던  
장애가 날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그렇런지도 모르겠다.

# 바이러스

정향기

눈앞이 환해지고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고  
가슴이 설레이는 걸 보니  
아마도 사랑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봐요

눈앞이 노래지고  
얼굴 가득 눈물 꽃 피고  
가슴이 아련히 아파오는 걸 보니  
아마도 이별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봐요.



## 먼 길

정향기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버겁다 느껴질 때  
그땐 주위를 둘러 봐요.  
혼자가 아니니까...

한달음에  
내달리면  
금방이라도  
가까워질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지는 길이  
야속하다 느껴질 때  
그땐 한 숨만 쉬어 가요.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니까...

단숨에라도  
힘껏 뛰면  
다다를 것 같은데  
먼 길은 어김없이  
끝내 멀어져 가도  
그땐 낙심하지 말기로 해요.  
늘 함께 할 우리가 있으니...

## 아버지의 등

정향기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건  
넓디넓은 아버지의 등에 업혀 나서는 바깥나들이였다  
나들이라고 해야  
고작 동네의원엔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아버지의 등 너머로 펼쳐진 세상은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왔다

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뒤틀린 몸은 더 뒤틀리고  
아버진 힘드니 가만있으라며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잠깐 풀렸다가도 이내 뒤틀려 버리는 내 몸  
그런 아버지의 입가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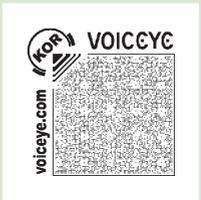
얼마 전 아버지 등에 업혔을 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 넓었던 기억 속의 아버진 간 데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른 장작처럼 야위신 아버지의 등  
그 등에 업힌 못난 내 모습이 원망스러웠다

이제 내 나이 스물여덟  
남들 같으면 열심히 일해 맛있는 상추쌈 한 상이라도  
푸짐하게 차려 드렸을 것을  
내 입에 고기한 점 넣어 주시며 흐뭇해하시는 아버지를 뵈며  
또 한 번 무너지는 가슴  
이것이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임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다시 아버지 등에 업히며  
마음을 되뇌인 말 이제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내일은 수정이한테 말해야겠다. 집이 없는 민달팽이가 되지 말라고,  
수업시간에 사라지지 말고, 학교 만나오고 그러지 말라고,  
너의 달팽이 집은 우리 5학년 3반 교실이라고”  
-박진희 「수정과 민달팽이」 중에서



## 박진희

저는 지체장애인으로 티없이 맑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장애인문학제 운문부문 최우수상 수상하였고, 장편동화 『그림자마을』 출간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장편동화 그림자마을을 써서 책으로 출간할 때도 그랬고요, 이 동화에 집중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 편의 글로 주인공의 삶을 그린다는 것은 아름답고,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운문 속에는 마음을 담고 산문 속에는 일상을 그립니다. 코로나19로 갑갑한 요즘이지만 글 한 편 속에 저를 그리며 제게 주어진 시간을 달립니다.

# 수정리와 민달팽이

박진희

오수정이 사라졌다. 점심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입을 해, 벌리고 있었는데. 배시시 웃을 때면 침이 용수철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었는데. 그런 오수정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시작되었는데도 교실에 오지 않았다.

어제부터 오수정하고 짝꿍을 하게 됐다. 오수정하고 짝꿍하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지 고민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민경이처럼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저번 주에 오수정하고 짝꿍을 한 민경이처럼 침 닦으라고 화장지를 주고, 책가방에서 책도 챙겨줬다. 조심히, 아주 조심히, 민경이처럼…….

오수정이 사라졌다고 선생님은 걱정했다. 선생님이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민경이처럼 오수정을 대했다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었다. 민경이랑 짝꿍 할 때 오수정은 교실에 꼬박꼬박 있었기 때문이다.

‘오수정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오수정 책상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가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집에 가지 않은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리다 말고 빗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운동장을 봤다. 창문을 꿈틀꿈틀 기어가는 달팽이가 보였다.

‘저 달팽이를 새 식구로 맞아들일까?’

내 방 플라스틱 통 속에서 키우고 있는 달팽이가 생각났다. 선생님만 없었으면 얼른 떼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었을 것이다. 선생님을 힐끔 보았다.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오수정이 갈 만한 곳이 없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자 반 아이들은 모두 그곳을 봤다. 우리 친구 반 선생님인 이은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이은화 선생님은 교실 밖에 누가 있는지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배시시 웃고 있는 오수정이었다. 우리 친구 반 교실 옆에 쪼그려 앉아 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했다. 이은화 선생님은 선생님을 복도로 불러냈다.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 몰라?’

나는 옆에 앉은 오수정에게 고개를 돌릴까 하다가 말았다.

“미인 달팽이, 미인 달팽이…….”

오수정의 목소리는 들떠있었다. 어디서 잡았는지, 오수정 책상에는 민달팽이가 꿈틀꿈틀 기어 다니고 있었다. 달팽이집은 없고, 미끌미끌한 몸만 가지고 있는 민달팽이……. 징그러웠다.

‘꼭 생긴 대로 논다니까. 그래, 너하고 닮았다. 같이 놀아라.’

책을 보는 척 했지만 머릿속 생각은 오수정 책상을 기어 다니고 있을 민달팽이에게 집중됐다.

오수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다. 작년까지는 우리 친구 반에서 공부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랑 같이 공부한다고 했다. 입을 벌리고 다니고 침이 흘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말도 잘 못한다. 오수정이 가까이 오면 소름이 끼쳐서 피해버리곤 했었다.

‘어떻게 일주일 버티지?’

저번 주에 관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경이처럼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서현아, 너희 집 달팽이도 달걀껍질 먹어?”

앞에 앉아있는 민경이가 물었다.

“오늘아침에 넣어주고 왔는데 먹겠지?”

“달팽이가 어찌나 귀여운지.”

내 방에 있는 달팽이가 하는 행동도 말해주려다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말하지 못했다.

내가 달팽이를 키우게 된 것은 저번 주부터다. 비온 뒤 베란다창문에서 자기 몸보다 더 큰 집을 등에 얹고 다니는 달팽이를 봤었다.

‘달팽이를 키워볼까?’

만날 때마다 달팽이 이야기만 하는 민경이가 부러워서 나도 달팽이를 키우기로 했다.

달팽이는 배추를 먹으면 초록색 똥을,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 똥을 쏘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달팽이 키우는 것에 있어서 민경이와 이야기도 많이 했다.

‘초록색 똥, 주황색 똥…….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민달팽이를 보고 있는 오수정한테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 냄새에 먼저 반응한 것은 오수정 뒤에 앉아있는 정현이었다.

“와, 똥냄새야! 수정이 똥 쏘다!”

정현이는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다. 오수정 주변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코를 막았다. 물론 나까지도 말이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 수정이 똥 쏘어요.”

정현이가 자기 책상에서 멀찌감치 물러서서 선생님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은 오수정한테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오수정은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선생님이 오수정 집에 전화를 해서 오수정 엄마가 왔다. 오수정 엄마가 그러는데 그 냄새는 침 냄새였다. 오수정은 항상 침을 흘리기 때문에 옷에 침이 많이 묻어 냄새가 났던 것이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리나케 달팽이가 꿈틀거리는 플라스틱 통 앞으로 갔다.  
 “잘 있었어?”  
 분무기를 집어 플라스틱 통에 덮인 망을 열고 물을 뿌려주었다. 아침에 넣어 둔 달걀 껍질이 그대로 있었다.  
 “뭐니, 너희들. 둘이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래? 밖에 친구 있으면 데려다 줄 테니 달걀 껍질 먹어야 돼. 알았지?”  
 망을 덮고 베란다로 나갔다.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달팽이는 보이지 않았다.  
 ‘없네. 잎사귀나 몇 개 넣어줘야지.’  
 화분으로 가서 흙 위에 떨어진 화초 잎을 집어 들었다.  
 “엄마야!”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오수정이 책상 위에 두고 좋아하던 민달팽이였다. 징그러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들고 있는 잎을 던져버렸다.  
 ‘어휴, 이따가 서진이 오면 잡아서 버리라고 해야겠어.’  
 학원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 아까 본 민달팽이가 자꾸 생각났다.  
 ‘으이그, 서진이가 빨리 와야 할 텐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수정이 보였다.  
 ‘아까 미안했다고 말할까?’  
 오수정이 책상 위에 둔 민달팽이가 생각났다. 화분에서 본 민달팽이도 같이…….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어 오수정을 피해 학원에 갔다.  
 학원에 가서 민경이를 만났다. 민경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보자마자 달팽이에 대해 물었다.  
 “달팽이가 달걀껍질 먹었어?”  
 나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민경아, 민달팽이가 화분에 있더라고. 징그러워서, 으…….”

민경이한테 민달팽이 이야기를 했다. 학원에 오면서 본 오수정이 생각났다.

“민달팽이가 뭐가 징그러워? 나는 민달팽이랑 달팽이랑 같이 키우는데.”

민경이가 아무리 달팽이랑 민달팽이랑 같이 키운다고 해도 그것은 부럽지 않았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서진이한테 민달팽이 잡아서 버리라고 해야지.’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에 떨어진 화초 앞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아까 봤던 민달팽이가 생각났다.

‘꿈틀거리고 있을 텐데…….’

화초 잎을 들고 꼭 감은 눈을 슬며시 떠보니 민달팽이는 없었다. 화분에 떨어진 다른 화초 잎을 들춰보아도 민달팽이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치워버린 모양이야. 그렇게 징그러운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

저녁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계란껍질 먹고 등에 얹은 집 튼튼해져야지.”

나는 플라스틱 통에 덮인 망을 열다말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플라스틱 통 안에는 민달팽이가 꿈틀꿈틀 기어 다니고 있었다.

“엄마! 누가 플라스틱 통 안에 민달팽이 넣어 놨어?”

“아까 서진이가 넣어 놨다. 누나가 좋아할 거 같다고 하면서.”

나는 서진이 방으로 갔다. 서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야! 민달팽이 갖다 치워! 징그러워!”

“왜, 똑같은 달팽이잖아. 달팽이 키운다고 할 때는 언제고.”

서진이는 컴퓨터게임에 푹 빠져있는 듯 했다.

“빨리 갔다 치워!”

“누나가 해. 나 지금 바빠.”

플라스틱 통 속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데 소름이 돋았다. 민달팽이와 달팽이를 밤새 봤다. 화초 옆 밑에 숨어 있는 민달팽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안녕!”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쪽 둘러보았다. 그런 선생님의 눈이 멈춘 곳은 비어있는 수정이 자리였다.

“수정이 화장실 갔니?”

“수정이 학교 안 왔는데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번시간에 배울 부분을 읽고 있으라고 했다. 교무실에 가서 수정이 집에 전화한다고 교실을 나갔다.

“와, 우리 반 꼴통, 학교 오면 이상한 소리로 수업 분위기 흐려놓고, 학교 안와서 조용하다 싶으니까 또 신경 쓰게 만드네.”

뒤에 앉아있는 정현이가 손가락으로 공책을 팡그르르 돌리며 말했다. 신경이 쓰이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이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현, 너는 친구가 안 왔는데 걱정도 안 되냐?”

앞에 앉아있는 민경이가 정현이를 찌러봤다.

“너는 수정이랑 친척이라도 되냐? 어째, 짝꿍 할 때 잘해주더라니……. 나는 다음 주가 걱정된다.”

“너는 수정이 입장에서 어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최소한 미안하다고는 했어야지.”

민경이는 수정이가 학교에 안온 것이 어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20\*\*년 3월 14일 수요일

민경이가 민달팽이 잘 키우고 있냐고 물어 봐서 플라스틱 통 안에 있다고 대답해줬다. 민달팽이는 밤에만 달팽이하고 논다. 어두울 때만. 아직 민달팽이한테는 플라스틱 통 속의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수정이를 봤다. ‘오늘 왜 학교에 안 왔니?’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화초 옆 밑에 숨어있는 민달팽이를 보니 수정이 생각이 났다. 수정이도 민달팽이처럼 꼭꼭 숨어버리고 우리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민달팽이는 달팽이와 다르게 등에 집을 얹고 살지 않았다. 왜 그럴까? 처음에는 집이 없는 민달팽이의 생김새가 징그러웠는데 자주 보니 이제는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민달팽이는 집이 없는 달팽이이기 때문이다. 달팽이와 민달팽이는 집이 있건 없건 사이좋게 잘 지냈다.

‘너는 수정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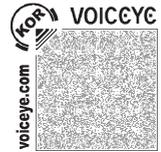
민경이가 정현이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민경이나 수정이나 같은 친구인데…….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20\*\*년 3월 15일 목요일

학교에 가니 수정이가 와 있었다. 괜히 짜증이 났다. 정현이는 수정이를 떨떠름한 표정으로 봤다. 민경이는 수정이한테 어제 뭐했냐고 물어보았다.

나도 민경이처럼 수정이한테 어제 뭐했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의 나는 떨떠름한 표정의 정현이었다. 그토록 친하게 지낸다고 다짐을 했건만. 얼른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오늘은 불을 켜놓아도 달팽이랑 민달팽이가 놀았다. 이제 민달팽이도 플라스틱 통 속



환경에 익숙해진 모양이다.

수정어가 생각났다. 내일은 수정어한테 말해야겠다. 집이 없는 민달팽이가 되지 말라고. 수업시간에 사라지지 말고, 학교 안 나오고 그러지 말라고. 너의 달팽이집은 우리 5학년 3반 교실이라고.

집에서 들고 온 민달팽이와 달팽이가 함께 사는 플라스틱 통을 수정어에게 보여줬다. 수정어는 민달팽이와 달팽이가 함께 기어가는 것을 봤다. 민달팽이가 플라스틱 통 속 환경에 익숙해진 것처럼 수정어도 우리 5학년 3반에 적응했으면 좋겠다.

“미인달팽이랑 달팽이랑 같이 논다.”

수정어가 한 말이다. 수정어는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달팽이에게는 집이 없지만 플라스틱 통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 수정어는 작년에 우리친구반과 4학년 3반 교실을 오가며 집이 없는 민달팽이처럼 살았지만 이제 우리 5학년 3반이 튼튼한 달팽이집과 같은 수정어의 친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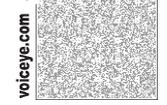
플라스틱 통을 보고 있는 수정어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돌린 수정어에게 처음으로 눈을 맞추고 빙그레 웃었다. 수정어가 입을 헤, 벌리고 배시시 웃는다.

“야, 너도 이제 우리 반이야. 맘대로 학교 안 나오고, 수업시간에 어디가고, 그러지 마라.”

수정어는 내 말을 들은 걸까? 수정어는 달팽이를 플라스틱 통 속에서 꺼내 자기 손 위에 올려놓았다.

장애인 미발표 문학작품집  
‘문학으로 만나는 예술날개’

KOR VOICEYC



voiceye.com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겨낼 힘의 원천은 부모님의 하해와 같은 지극정성한 보살핌이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고비마다 믿고 따라준 천사같은 아내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노대전 「나는 가족이 보물이다」 중에서



# 나는 가족이 보물이다

노대전

기계와 기술을 전수해준 분은 자신을 ‘바우아빠’ 라고만 소개하였다. 우리에게는 은인(恩人)인데 그의 집이 양림동이라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끝내고 함께 가서 기계 값 40만 원을 드렸다. 그리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빵을 구울 때 필요한 재료와 반죽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어 메모지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니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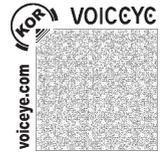
당장 잠자리부터 걱정이었다. 부근을 돌다 한 사람 숙박비가 3천원인데 두 사람 숙박비로 4천원에 하기로 하고 양림동 천변에 있는 시온장 여관에 들었다.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애를 태웠다. 첫날은 배우면서 탄 것은 버리고 잘 구워진 빵을 판매해보라며, 바우아빠가 재료를 가지고 와 반죽을 하고 빵 굽는 법을 시범삼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날은 바우아빠에게 연습할 재료를 파시라고 하니 우리의 형편을 눈치 챘는지 재료값 적게 받고 반죽을 더 많이 해 주었다. 바우아빠가 장사하던 무등극장 옆에 리어카를 끌어다주며 해보라고 하여 2만원 어치를 팔았다.

그동안 광주에서 방세가 가장 싸다는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니 북구 우산동이라고 하여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버스를 타고 낫선 곳을 찾아갔다. 아내가 가서 10개월에 사글세 12만원짜리를 3만원 계약금 주고 9만원은 15일 후에 드리기로 하고, 소개비 5천 원 주고 남은 5천원은 내 택시비라고 했다.

“당신 가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탄불은 큰방 할머니가 넣어 주신다고 했다며 아내는 내 걱정부터 했다. 우리의 전



재산이 나 다름없는 리어카를 두고 갈 수는 없고 신고 가려니 무거워 차에 실어 올리지도 못한다며 아내는 끌고 가보겠다고 하였다. 빵 기계와 가스통 배터리, 파라솔 세트가 리어카에 설치되어 있어 분리도 할 수 없었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내는 양림동 시온장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북구 우산동 중흥교회 옆까지 걸어왔다. 시골에서는 한 번도 리어카를 끌어보지 않았던 아내가 광주 초행길을 리어카를 끌고 왔다고 생각하니 참 뭐라 말 할 수 없이 마음이 착잡했다. 양림동에서 북구 중흥교회까지 대략 5Km 거리를 말이다. 이렇게 먼 거리를 광주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 내리는 찾길을 위험을 감수하고 걸어오면서 나를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내 앞에서 힘든 내색 한 번 안하다니... 아내의 고생에 미안했고 그 마음 씩씩이가 한없이 고맙기만 했다.

얼어 죽지만 앓을 것 같으면 남의 집 처마 밑이라도 잠을 자야 할 형편인데 가서 보니 그 집은 나에게 호텔 같이 느껴졌다. 계약금만 지불한 집이었지만 편히 잘 수 있었다.

다음날은 재료를 조금 사서 반죽을 했지만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해야 할지 몰라 헤매었다. 아내가 리어카를 끌고 구 호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잘 팔리지 않아 서방시장 삼거리 세명약국 앞에서 장사를 하였다. 노점상 단속을 피하며 첫날 만원어치 팔고 다음 날 재료를 조금 구해 장사를 해나갔다. 끼니는 팔다 남은 빵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쌀 한 되에 1,700원, 콩나물 100 원어치 사서 콩나물죽을 쑤어 한 그릇씩 먹고, 수시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런 와중에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노점상을 해서라도 갚아 드릴테니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십사고 부탁했다.

이사 온지 15일이 되었을 때 아내는 집세 9만원을 어렵게 채워 드렸다. 그런데 마침 큰아이 안경이 파손되어 안경을 맞춰야 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누가 내 구두를 가져가 신을 신발이 없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해 빌려서 해결했다. 며칠간 장사로 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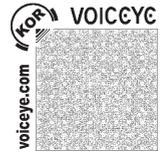
게 돈을 모아 빌렸던 돈을 주인에게 갚아드렸다.

아이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다녀올 생각으로 광주에 왔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아내는 한 달이 지나서야 아이들을 보러갔다. 그러나 아이들 목욕을 시키다 욕실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아내도 그동안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한데 아이들의 몰골을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이 북받쳐 기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한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아내는 병원에 실려가 링거 맞고 깨어나 광주에 와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장사를 하였다. 아이들에게 한 번 다녀오려면 하루 장사를 접어야 하고, 교통비와 아이들 필요한 물품도 사가야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마음과 같이 자주 다녀 올 수 없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날이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나는 진심을 담은 답변서를 보내 갚을 날짜를 연기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렇게 채권자와 법정에서 합의를 이루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님이 사업 하다 형제들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채무자인 나를 뒷전에 두고 형을 욕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의 탓을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다. 내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극심한 역경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형 또한 나쁜 의도에서 사업을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침 고향에서 친하게 지냈던 김만수, 정승채, 강종윤(강수)가 찾아왔다. 밖에 나가 술이라도 한 잔 하자는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 쌀 80kg 한가마를 짊어지고 쇠고기를 사 가지고 왔다. 집에 쌀이 없는 것 같아 쌀을 사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역시 고향이 따뜻한 밥이고 친지들이 고마웠다. 아내 있는 곳을 묻기에 가르쳐주니 아



내 있는 곳에 들렀다 내려갔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찾아와 도와준 그들의 마음이 고맙고 쌀을 보니 안 먹어도 부자가 된 마음이었다.

쌀을 보니 시골에 떼어놓고 온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쌀을 나누어 보내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쌀을 모아 양동이로 가져다주었다. 한동안 그 쌀로 콩나물죽을 쑤어서 반찬 없이 먹으며 살았다.

나는 신문도 없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없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없이 한 두 달을 방 안에서만 지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 한 번 하려면 서방시장 건너 구 호전 중흥교회 근처에서 동신전문대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까지 몇 번을 쉬어가며 도착했다. 전화를 하는데 한 통화료가 180원, 몇 마디 하고나면 3통화에 540원이 금세 들어가고 이 돈마저 여유가 안 되니 전화도 자주 하지 못했다

돈 있으면 껌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얼마간 장사 밀천을 마련할 궁리를 했다. 전에 보험 넣었던 것 중 일부를 대출 받아 썼기 때문에 찾을 것이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적은 돈이라도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찾아서 장사를 해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중(中)형에게 모두 해약을 해 주라고 부탁드려 여러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준 돈이 20만 원 정도 되었다.

물건을 구입해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려는데,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시내에서 하면 상권이 겹치니 물건을 대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산동에서 가까운 서방시장 부근에서 장사 하겠다고 하고 물건을 받아왔다.

내가 살던 고향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준 돈 18만원과 정화위원회에서 5만원을 더해 23만원을 가지고와 위로의 말과 도움을 주니 고맙고 힘이 되었다. 사진사를 동행해 나의 생활하는 모습과 내가 빵 반죽을 하는 것을 촬영하기에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다. 기왕이면 효과를 보아야 힘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를 찾

아와주신 분들에게도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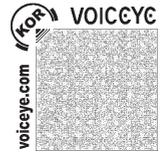
서방시장 큰길 건너에서 장사를 하는데, 잘 팔리지 않고 더운 날씨에 차가 지나가면 뜨거운 열기와 먼지만 물건 위에 쌓였다. 이렇게 장사도 안 돼서 택시를 타고 구 원호청 건너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다. 오가는 택시비 주고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았다. 간혹 물건을 샀던 사람이 물건을 살짝 파손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면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데모하면 최루탄 가스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구두 수선하던 부부가 도와주기도 했다. 최루탄 가스에 노출되어 위험할 때면 양복점에서 주인과 직원이 들어와 피해가라고 종종 도움을 주었다.

시내는 기존에 자리를 잡은 노점상의 텃세가 심해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나는 도청 앞 전일빌딩 건너 와이 엠 씨 에이 앞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장사가 조금씩 되는데 술 먹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지하상가 공사로 복잡하기도 했고, 도청 앞이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도 자주 있었다. 경찰과 학생들이 급히 뛰어가며 판매할 물건을 짓밟아 피해를 입은 적도 많았다.

동구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은 무리지어 다니며 노점상 단속을 심하게 했다. 하루에 여섯 번 짐을 싣다가 다시 펴기도 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이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찍 일어나 일찍 나가고 어두워져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장사를 했다. 아플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인지 크게 아프지 않고 생활 할 수 있어 감사했다.

빛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공휴일과 명절까지 따라 쉬면서 언제 빛을 갠고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 겠느냐는 마음이었다. 남다른 노력 없이는 내 앞에 놓인 난제들을 풀 수 없으니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간혹 채권자가 찾아와서 빛 독촉을 하면 마음의 양심은



신명(身命)보다 더 귀중하다고 믿고 살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자녀교육 또한 신명(身命)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켜갔다. 사람이 어디에 몸을 담고 있든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교훈을 얻고 남기고 살아간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겨낼 힘의 원천은 부모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와 지극 정성한 보살핌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고비마다 믿고 따라준 천사 같은 아내에게 어떠한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세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사랑스런 내 손주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

# 나는 인생 기술자

노대전

나에게는 형이 네 명이 있었다. 한 명은 그만 잃고, 세 형들이 나에게 바둑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이때는 농촌 가정에 바둑 장기가 귀할 때였지만, 형들이 도시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고향집에만 있는 동생을 생각해서 바둑 판 구입이 빨리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하는 일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세상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둑 공부를 많이 해서 훗날 기원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의 말도 해 주었다. 바둑을 제대로 배워 보지는 못했어도 형들이 바둑 두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터라, 바둑을 책으로 보고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바둑 책을 13권 사다주셔서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하며 한동안 바둑에 푹 빠졌다. 단순히 즐길 때와 달리 승부욕을 가지고 과하게 두기 시작하자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이것이 살을 빼는 약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살이 찌기는 어렵고 쉽게 빠지는 체질이라, 바둑을 가끔씩만 즐기기로 했다.

다음에는 생산 양계에 관한 책을 사다주며 읽어보라고 했지만,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너무 쉽게 포기했었다. 전문 지식만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양계사업이었는데 말이다! 그 외에도 아버지는 손도장 파는 기술과 시계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모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었다. 동네 사람들과 바둑, 장기, 화투로 즐기고 친구들과 놀이하며 즐기고 낚시로 시간 보내고 라디오 뉴스 노래듣고, 하모니카, 피리, 기타치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즐겨 보지만 그런 시간이 아닐 때는 고독할 때가 많았다. 군대 갔던 중(中)형이 제대하고 나와 내가 기술을 배우려다 어려워서 덮어둔 것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형은 친구가 라디오 텔레비전 기술 개인지도를 하는데, 나에게 배울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고 대답했다. 형이 친구에게 나를 부탁해 3년간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잠자는 방이 따로 없어 마루판자 위에서 자고, 겨울이면 담요 깔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혈이 부족한 발에 동상이 심하게 걸려 밤이 되면 베로 만들어진 자루 속에 담겨진 콩으로 양쪽 발을 감싸고 잤다. 동상 걸린 발은 찬물에 담그면 아프고 간지럽고 힘들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배워 꿈에 그리던 기술을 결국 마스터하였다. 나에게도 불가능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보다 먼저 기술을 배우던 5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나 혼자 남아서 라디오, 전축, 확장기를 제작하고 조립하여 완성하는 것까지 배웠고, 가전제품 수리 기술을 배워 고장 난 가전제품을 내 손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형이 전파사를 하면서 전기전자 기술 개인지도를 하는 친구를 나에게 연결시켜, 기술을 마스터 하게 해주니 형제는 다 소중하지만 중(中)형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날을 알 수 없던 인생이 형 친구를 통해 전기 전자 기술을 마스터하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평소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 그러니까 ‘세상사 앞날 중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이 어디에서 올지, 누구도 쉽게 말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병의원들을 통해 내 몸을 고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전자기기를 새로 만들고 고장 난 가전제품을 고칠 수 있다는 자부심은 큰 것이었다. 그로 인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장이 나서 말 못하는 라디오를 수리해서 말소리가 들릴 때, 뉴스를 들려주고 마음에 와 닿는 노래가 나오면 뿌듯하고 즐거웠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소리를 들으며 전자기기를 손 볼 때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가진 꿈이 있고, 이루려는 열정이 있다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니 무엇이든 힘들더라도 참고 노력하면 마침내는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는 일마다 좋아하고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만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면 누가 구해주겠는가!

내 나이 18세에 전기 전자기술 개인지도를 받기 시작해 20세까지 3년 동안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 선생님의 도움으로 전파사에서 21세 때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으로 라디오 전축을 새로 제작하고 조립완성은 물론, 가전제품 고장수리까지 내 손으로 다 해냈다.

선생님께서 나를 성실하게 보셨는지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는데, 고객님의 여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많은 힘을 써 주었다. 그러나 만남이 어디 그리 쉬우랴! 선생님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가씨의 오빠가 네가 생산(生産)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으로 반대했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누가 봐도 불편함이 심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

고향이 전북 남원이라던 선생님은 나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모저모를 잘 지도해주었다. 그렇게 선생님 밑에서 일하던 중 선생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 선생님은 전파사를 나에게 넘겨 줄 테니 인수해서 잘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부모님에게 말씀 드렸더니 나에게 인수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것이라며 흔쾌히 허락하고 인수금액을 마련해주었다. 그렇게 1971년에 전파사를 인수해 22세 때부터 경영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던 전파사 사업을 젊은 나이에 현실로 이룬 것이다. 지금도 서울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 선생님을 한 번 꼭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에게 시계를 가르쳐주었던 두 시계기사도 지금까지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찾아뵙고 차를 한 잔 꼭 대접하고 싶다.

아버지는 당시 병환으로 누워계시면서도 전파사를 둘러보기 위해 매일 오셨는데. 기력이 점점 약해지셔서 3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오기 힘들 정도였다. 아버지를 뵙기 위해 집에 가면 늘 여동생과 나를 걱정하셨다.

그 시절에 가정용 전기가 100V에서 220V로 승압되어, 많은 전자제품이 높은 볼트를 사용하게 출시되었다. 전기가설이 이루어지며 마을 회관에 새마을 확성기를 설치할 수 있어, 찻터찻터 울리는 음악소리와 안내방송이 마을마다 이른 아침을 깨웠던 때이다. 위의 설치 또한 내 업소에서 80%를 해냈다. 진공관 시대가 거의 끝나고 트랜지스터 시대에 도래하고 있었으며 곧이어 아이시(IC) 시대로 바뀌어갔다. 가정에 유선으로 보내주는 전선을 이용하여 스피커 방송을 듣던 시대에는 라디오가 한 마을에 한 집이나 두 집 밖에 없었다. 그런 시기에 무선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를 비롯하여 전축, 녹음기, 가전제

품이 많이 팔리니 나에게서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 평생 직업으로 믿고 사업을 했다.

결혼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매일 만나거나 하루건너 만나던 사람과 맺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인연은 따로 있는 것인가 보다. 아는 동생으로 지내며 열흘에 한 번쯤 만나던 분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데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어 몇 번 편지를 보내면 한 번 와서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오려면 상가 앞을 지나야 한다. 서로 남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던 지라 상가 뒤쪽 수로 옆길을 낫도 아닌 어두울 때 오가곤 했다. 시간을 절약할 겸, 남의 시선을 피할 겸 해서 지름길인 수로를 건너 어두울 때 변변한 등도 없이 다녀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대단한 결단이었다. 또 어머니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런 인연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천생연분이 아니면 무엇일까?

어머니가 엄해 함부로 외출 허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녀는 어머니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집안을 도우는 등 신경을 썼다고 한다. 당시 가설극장이 들어왔을 때 다행히 영화구경을 간다 하면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좋아하던 영화구경을 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와주었다. 낮에는 특별하게 볼일이 있거나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하러 와서 만날 수 있었다.

만날수록 그녀의 온순한 성격과 진실성이 돋보였다.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이 예뻐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농사일과 소 돼지 가축 기르는 일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고생 하는 것이 안타까운 언니가, 시골집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도와 드리라고 자주 권하여 내려온 것이었다. 당시는 친오빠가 없어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는 중이었다.

환한 낮에 우리 가게를 들릴 때 원피스 차림에 등까지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 굽 높은 구두를 신은 모습은 아주 품위 있고 멋있어 보였다. 그녀가 다녀가면 그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각인되곤 했다. 이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그녀는 동생이 아닌 애인으로 내 마

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 그녀에게 프리포즈를 하였다. 그러나 그리 쉽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말도 없었다. 만남이 계속될 때마다 나는 정식 청혼을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확답은 쉽게 주지 않았다. 나는 형수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빨래를 맡기는 등의 신세를 지고 있어 내 입장에서는 그녀가 내가 원하는 확답을 주고 결혼을 서둘러 주면 좋겠지만, 시간을 보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는 논과 밭일이 많고 소, 돼지 가축도 기르고 있어 어머니를 거들여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돌봄이 필요한 동생도 여럿 있었다. 또 혼기가 찬 나이도 아니었고 아직은 집안에 그녀의 힘이 더 필요한 때라 당시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끔 중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집에서 더 나이 먹어서 보낸다고 미루었다고 한다.

그녀는 다행히 나와 결혼을 하겠다며 나의 청혼을 받아 주었다. 누구나 한번쯤 돌아볼 만 한 미인인데 그런 그녀가 나의 청혼을 받아주었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했다. 이젠 그렇게 엄하다는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서로 많은 궁리를 하다 중간에 중매인을 세우기로 했다. 중매인의 역할이 컸는지 어머니의 승낙을 어렵사리 받을 수 있었고, 승낙을 받자 나머지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일류지대사라는 결혼을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하게 되었으니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았다.

동생으로 알고 지낸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다. 여러 아가씨들을 만나 보았다. 그중에 나와 함께 먼 미래를 변함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택한 것이다. 내 나이 25세, 한창 나이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신혼여행을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다행히 친구가 광주 시내라도 한 바퀴 돌고 사진촬영을 해 주겠다고 하며 동행을 자처했다. 친구의 택시를 타고 광주 ‘우래정’이라는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지만 차멀미가 심했던 탓인지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아내와 함께 동행해준 친구들만 식사를 하고 우리는 지산유원지와 산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집에 도착했다.

차멀미로 마치 죽사발처럼 늘어진 나는 기진맥진했다. 가족과 일가친척들은 신랑 신부 노래 한자리 듣겠다며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좋아하는 노래도 부를 수 없었다. 아내는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를 불렀다. 자신을 그렇게 예뻐해 주신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결혼하였으니 아버지가 그리웠던 것은 당연했으리라. 마땅히 답가(答歌)를 불러주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신부에게 너무 미안했다.

첫날 밤, 아내는 나를 껴안으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고 울며 말했다. 그 말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이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먼저 말해준 것이었다. 진심으로 감동이였다. 이렇게 속 깊은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미안하고 고마워서 할 말을 잊고 감동했다.

첫날 밤 답가도 불러주지 못한 빚을 갚고자 이후 연예인이 되어 애창곡 중 40곡을 불러서 CD와 USB에 담아 매일 들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으로 첫날 밤 답가를 불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고는 아내가 전기 전자제품과 필요한 부속품을 구입해오는 일을 도맡아 하며 함께 가게를 운영해나갔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계셨더라면 결혼을 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다.

당시 나의 몸 상태는 양 목발을 짚고 100미터~15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걷지 못했다. 그 이상 가려면 택시를 불러야 했다. 당시 집에 들여놓은 TV나 전축 등 가전제품은 부피가 커서 출장수리를 해야 하는데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없어 오토바이 2대를 구입했

다. 이것을 공업사에서 3륜 오토바이로 변경 제작하여 타고 다니며 출장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비포장도로라 울퉁불퉁하여 나로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다. 또 자동차가 자주 지나가는 길에 바퀴 자국이 깊이 패여 비라도 내리면 물이 방방하게 잠겨 있어 더 힘들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부업을 생각하다 79년부터 돼지를 키우기로 했다. 다섯 칸의 돈사를 지어 새끼 밴 어미돼지를 포함하여 중돼지, 새끼돼지 등 20마리를 구입했다. 돼지는 아내가 기르기로 하고 옆집 점포 한 칸을 빌려 사료를 판매하며 우리 돼지먹이도 공급하게 하였다. 하루는 어미돼지가 처음 새끼를 낳는데 몇 마리가 더 남은 상황에서 출산이 어려워 수의사를 불러야 했다. 새끼는 죽어서 나온 놈도 있고 살아서 나온 놈도 있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어미돼지는 12마리 새끼를 낳고 그만 죽어버렸다.

새끼돼지는 아홉 마리가 살아서 나왔는데 어미가 죽어 우유를 먹이며 길러야 했다. 그런데 어미젖이 아니라 그런지 크지 않고 오히려 더 마르기만 했다. 할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 마리씩 기르라고 나눠주었다. 나는 가능하면 길게 양돈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막내를 임신하고 7~8개월이 되자 돼지 치는 일이 어려워졌다. 그런 아내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고생만 하는 아내가 짝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국 양돈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농사지으랴, 아이들 키우랴, 아이들이 아프면 광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전파사 물건 하러 다니랴, 또 담배 소매를 위해 담배도 구입하러 다녀야 했던 아내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년 1남을 낳아 기르는 동안 내 손으로는 아이들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못했다. 밭이 가까워도 200미터~300미터 거리 밖에 있어 아내가 밭에 가고 없을 때 아기가 울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밭에 있는 아내를 불러달라고 해야 했다. 그러면 아내가 와서 기저

귀를 갈고 젓을 먹이고 아이를 재운 뒤 다시 밭에 나간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기저귀 한번 변변하게 갈아 주지 못했던 것은 기저귀를 갈고 나면 손을 씻어야 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쉽게 손을 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가게를 혼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어려웠다. 지금처럼 좋은 기저귀가 있고 물티슈라도 있었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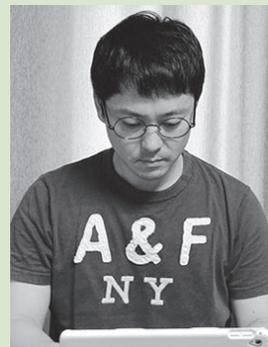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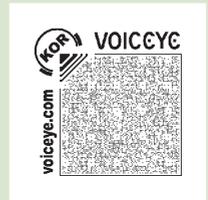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내는 유치원부터 아이들 학교생활과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모 활동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선생님들께 선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년이 끝나면 꼭 찾아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그동안 우리아이 학교생활이 어떠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네 자녀 모두 잘 자라준 것은 이런 아내의 현명한 처신 덕분이었다.

몸은 불편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노는 것을 좋아했다. 승부욕이 강해 내기가 걸린 게임은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곤 했다. 당시는 이렇게 돈을 버는 즐거움과 돈을 쓰는 즐거움, 또한 기타를 튕기면서 노래하는 즐거움과 아울러 바둑·장기·남시 등도 참 좋아했다. 살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자신감 있게 즐기는 삶이었다. 사업을 하면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경영을 하였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하니까 멀어지지 않게 하고 지내왔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 하신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름대로 행복하다.



“기준은 생각했다. 여자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 역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박영진 「산책」 중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가들

## 박영진

저는 장루장애인입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거대한 이상을 품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샌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자주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을 통해 그 안의 무언가를 들여다보려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단편소설은 대략 7~8년 전에 썼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묵혀두었던 글입니다. 아무쪼록 제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라봅니다. 단 한 명 뿐이더라도 기쁠 것 같습니다.

## 산책

박영진

요즘 들어 기준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한 가지 생겼다. 이것을 취미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그건 바로 한 여자를 몰래 관찰하는 것이었다. 물론 몰래 관찰한다는 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혹시 기준에게 관음증 같은 변태 성욕이 있는 게 아닌지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이 여자를 훑쳐보는 데는 그런 저급한 이유가 절대 아니다. 단지 그 여자가 매일 공원에 나와 하는 행동들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유별난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준은 오늘도 어김없이 근처 호수공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불과 십 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늘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다. 최근 다리의 부기가 부쩍 심해진 게 그 이유였는데 재활 프로그램에 맞춰 다시 가벼운 러닝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무릎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이 염증 재발로 무릎에 물이 차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번 경우는 순전히 기준의 조급함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는 바람에 빚어진 결과였다. 게다가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남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임에도 스스로 느끼기엔 갈수록 심하게 다리를 저는 것 같아 신경마저 예민해진 상태였다.

기준의 산책 시간이 대중없는 것과는 달리, 여자는 매일 저녁 여덟 시 즈음이면 반질 반질 윤이 나는 금발의 레브라도레트리버와 함께 호수공원에 나타났다. 여자는 그 레브라도레트리버를 ‘둘리’라고 불렀다.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슷한 시간에 공원에 도착한 여자는 호수 가장자리로 조성해 놓은 산책로를 둘리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둘리의 목에 채워진 줄을 붙잡고 바투 뒤에 붙어 가는 모습이 언뜻 끝

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여자의 몸은 가냘팠다.

기준이 처음 그 여자를 본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평소 같으면 인적이 뜸해지는 밤 열시가 가까워져야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섰을 텐데 그날은 저녁을 먹은 직후부터 속이 더 부룩해 소화도 시킬 겸 일찍 호수공원을 찾았다.

밤안개가 자욱한 호수를 끼고 삼사십 분쯤 걷는데 기준의 다리가 또 말썽을 부렸다. 기준은 아픈 다리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다 앉을 곳을 찾았다. 때마침 호수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목교 근처로 가지를 치렁하게 늘어뜨린 버드나무 앞에 놓인 벤치가 눈에 띄었다. 다행히 앉아 있는 사람은 없었다. 기준은 오른쪽 다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 걸으며 그곳으로 가 앉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치를 지나쳐 걸어가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날 기준은 여자의 걸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곱사등이처럼 약간 흰 허리에 180센티미터인 자신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키 그리고 팔은 무릎까지 내려올 만큼 긴데다가 다리는 조금만 세계 쥐어도 부러질 것처럼 가는 여자는 지금 당장 앞으로 고꾸라져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축 늘어진 얼굴 피부와 고르지 못한 치열, 좁은 미간, 매부리코는 여성으로서의 매력 또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 여자의 머리카락이 짧거나, 가슴 부분이 봉긋 솟아있지 않았더라면 성별조차 구분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기준은 생각했다.

하지만 기준이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 것은 단지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약 사백만 명, 전체인구의 십 퍼센트에 육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장애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만큼 기준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선 여자의 옷차림이 특이했다. 가뜩이나 키가 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띠 텐데 여자는 자신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건지 늘 밝고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공원에 나타났다. 오늘날 보더라도 그랬다. 굳이 그런 의상을 고른 이유가 기준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팔다리가 길어 한 마리의 호랑거미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난히 긴 목 때문에 멀리서 보면 얼핏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쓴 기린처럼 보이기도 하는 난해한 의상을 입은 채 산책하는 여자. 처음엔 주위의 싸늘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에 너무 무감각해 보여 여자의 시력에도 문제가 있는 줄 의심한 적도 있었다.

여자는 의상만큼이나 행동도 특이했다. 특히 주변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나무와 꽃, 풀들과 마주할 때면 십사리 눈을 떼지 못하고 걸음을 멈춰 섰고, 기준이 열 걸음이면 갈 거리를 마치 버진로드 위라도 걷는 것처럼 한껏 여유를 풍기며 감상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또한 여자 걸을 지나는 몇몇 사람들의 무람없는 행동이나 순진을 가장한 아이들이 괴물이다, 징그럽다, 라며 무심코 던지는 말에도 얼굴 한 번 붉히는 법 없었고, 어떨 땐 누나(혹은 언니)는 괴물이 아니란다, 고 친절히 답까지 했다. 설령 상대가 주의 깊게 듣지 않더라도 말이다.

기준은 그러한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괜한 오지랖인 것 같다는 생각에 차마 내뱉지는 못했다. 또한 지금껏 봐 온 여자의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이나 낙망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는 점도 말을 아끼게 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기준이 여덟 시에 공원을 찾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오늘도 호수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고 있었다. 기준의 눈에는 거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원 안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각종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의 굴레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은 중년의 남녀들과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어두컴컴한 곳을 찾아 배회하는 피 끓는 청춘들. 기준은 그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한쪽 다리에 치우친 무게 중심을 최대한 반대로 가져가려 신경 쓰며 걸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이었으나 기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온 신경을 다리에 집중하며 걸었더니 겨우 한 바퀴 돌고 나서 기준의 몸은 께느른해졌

다. 이제는 노인네처럼 무릎이 시큰거렸고, 늘 앉던 벤치에 앉아 꽤 오랜 시간 지친 다리를 주물러도 쉽사리 풀리지가 않았다. 백 미터를 12초에 주파하던 그때 그 다리가 정말 맞나 싶었다.

그렇게 아픈 다리를 책망하고 있을 때였다. 얼룩말 무늬 옷을 입은 여자가 돌연 벤치 끝으로 다가와 앉았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은 아니지만 무척이나 가까운 거리였기에 기준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시나 평소 자신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눈치챈 것은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새도복싱 동작을 흉내 내고, 떨어지지도 않은 동전 줍는 시늉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이었다.

기준은 여자의 옆얼굴을 잠시 몰래 바라보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자는 기준의 이상한 행동에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같이 온 둘리에게 땅콩 캐러멜처럼 생긴 고형 먹이를 입에 넣어준 다음부터는 오로지 손에 쥐고 있는 푸른 잎사귀를 유심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기준은 결눈질 끝에 그 푸른 잎사귀의 정체가 클로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지된 화면처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클로버를 바라보며 여자는 시종일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 장미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기준은 여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 그 푸른 잎사귀를 머릿속에 떠올렸고 아마도 네 잎 클로버였나 보다, 라고 추측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아직도 그런 행운이나 기적 따위가 찾아올 거라 믿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였다. 천의 하나, 만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그 두 단어. 기준은 헛된 희망을 품고 마음에 여지를 품는 여자가 조금 한심하게 느껴졌다.

때마침 근처 작은 연못에서 뱃고동 소리 같은 거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적막하고 쓸쓸한 대기 속에서 무슨 영문인지 거위는 계속 울부짖었다. 구슬프고 처량한 그 울음소리가 귀에 거슬린 기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날 오후, 기준은 모처럼 저주파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재활병원에 들었다. 어차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는 병원에 가는 일조차 소홀해져 기준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축구를 못하게 됐다고 인생마저 포기할 거냐며 역정을 내신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다.

최근 생긴 무릎 통증 때문에 별도로 MRI 촬영 검사를 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전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고, 매번 레퍼토리가 같은 의사의 말을 들었다. 이제는 지켜올 정도였다. 모든 진료를 마치고 나니 시계는 일곱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기준은 곧장 집에 들어가기 싫어 호수공원으로 갔다.

공원 안에 아직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해는 저물었으나 기온이 많이 오른 탓에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웠다. 그래선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의 한때를 즐기고 있었다. 기준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잠시 망설이다 기왕 왔으니 조금만 산책로를 걷기로 했다.

기준은 걷는 내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 살폈다. 쳐다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의 다리로 향해있다고 느꼈다. 그렇게 느낄수록 다리는 경직되었고 심박 수는 빨라졌다. 기준은 또다시 앉아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여덟 시가 지나자 기준이 찾던 여자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의상 콘셉트는 이른바 ‘봄의 향연’이었다. 하늘거리는 올리브색 치마와 겨자색 카디건을 두른 여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더니 늘 그렇듯 만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호수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기준은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다 여자의 뒤를 쫓았다. 으레 그랬듯 여자가 걷는 대로 걷고, 보는 데를 보며 여자의 웃음을 유발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기로 했다.

공원 안은 평화로웠다. 호수 중앙에 있는 대형 분수대는 인공조명과 음악에 맞춰 하늘로 물줄기를 뿜으며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그 옆에 피카소조차 난해하다고 느낄만한 청동 조형물 주변으로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로 둘

러싸여 있었다. 기준은 앞서 걷고 있는 여자를 포함하여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오로지 자신만이 불행과 맞서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삶의 전부를 순식간에 도둑맞은 것 같아 난데없이 울분이 솟구쳤다.

“저기요.”

잠시 음울한 생각에 빠져있는 틈을 타 여자가 말을 걸었다. 기준은 자신을 향한 시선과 부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여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기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자의 이상한 얼굴을 응시했다. 양상한 다리로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온 여자가 말을 꺼냈다.

“너무 애쓰지 말아요.”

기준은 어리둥절했다. 과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맞는 건지, 자신에게 한 말이 맞는다면 대체 무엇을 애쓰지 말라는 건지를 곱씹어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는 기준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대로 뒤돌아섰고, 멀어져갔다. 기준은 점점 불쾌해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자가 했던 말이 기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가 뭘데 자신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 건지 분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부를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화끈거렸다. 결국 달뜬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물을 연거푸 들이켜야만 했다.

그 일이 있는 후 기준은 며칠간 공원에 가지 않았다. 속 좁게 공원에서 여자에게 들은 말 때문에 발길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번 병원에 갔을 때 받았던 MRI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진단 결과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였다. 골절 후유증으로 일어난 괴사인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무릎까지 통증이 전이되어 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다시 기준은 걱정에 사무쳤다. 뜻하지 않은 부상 이후 어긋나기 시작한 인생은 이제 견잡을 수 없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남은 건 비참함이 전부였다.

무력감에 일주일을 하릴없이 흘러보냈다.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자고 성화였으나 기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는 동안 거의 음식도 먹지 않았고,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밤이 되면 잠이 들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다.

기준도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한다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준은 앞날이 막막했다. 축구는 차치하고 서라도 최악의 경우 평생 다리를 절룩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것을 후회했다.

보름쯤 지나자 심산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 양상을 띠었다. 해외 축구 중계 시청을 비롯해 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한 덕분이었다. 늘 진열장 한가운데에 있던, 고등학교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대회 MVP 트로피도 눈에 띠지 않는 곳으로 옮겨두었고 감독님, 코치님, 함께 축구하며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다. 어차피 관계에서 멀어지면 잊힐 사람이라 생각하니 정리는 의외로 쉬웠다. 기준은 일전에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애쓰지 말라는 여자의 말은 틀렸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자르고, 가두고, 부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여자는 모르고 있었다. 긍정이란 소모적인 자기 위안일 뿐이었다. 기준은 여자에게 보란 듯이 충고하기 위해 호수공원으로 갔다.

오후 내 내린 비로 인해 공원은 여느 때보다 한적했다. 여자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걷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다. 기준은 설마 그 여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 거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호수를 반 바퀴쯤 돌았을 때였다. 등나무 덩굴이 무성한 쉼터 쪽에서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불어 경쾌한 우쿨렐레 소리와 여성의 노랫소리도 들렸다. 기준은 그냥 지나치려다 목소리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You are my sunshine’을 우쿨렐레로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자였다. 여자는 연주 실력도, 노래 실력도 크게 돋보이지 않았으나 음색만큼은 유달리 고왔다. 그리고 변함없이 밝았다.

잠시 후 기준은 무언가가 거슬려 여자의 노랫소리를 뒤로한 채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기준은 그들 중 일부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측은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모를 악의에 찬 표정을 한 사람, 심지어 사탄이 씩었다며 사이버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날것 그대로의 시선을 여과 없이 보냈다. 여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를 분명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글벙글했다.

기준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여자의 행동 하나 하나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더욱 감정이 격해졌다. 그런 말을 듣고도 환히 웃고만 있는 여자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급기야 욕지기가 치밀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히죽히죽 웃고만 있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안 보이냐고!’

기준은 겨우 그 말을 삼켰다. 대신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만 좀 해! 듣기 싫으니까!”

별안간 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기준을 쳐다보았다. 연주와 노랫소리가 동시에 그쳤다. 여자가 망연한 눈빛으로 기준을 쳐다보았다.

주위의 사람들은 어느새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다. 기준과 여자, 단둘만이 등나무 아래에 서서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서가 아니었다. 단지, 둘 사이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선선했던 밤공기가 찬 이슬을 머금고 내려앉았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나무들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여자는 벤치에 앉아 들고 있던 우

쿨렐레를 케이스에 집어넣었다. 그러는 동안 기준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멀거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만 쭈뼛거리고 여기 앉아요.”

“.....”

“여기 앉으라구요. 다리 안 아파요?”

기준은 상냥하면서도 단호해 보이는 여자의 태도와 말투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고양이처럼 사뿐히 걸어가 벤치에 앉았다.

“사과해요.”

“네?”

“사과 몰라요? 저한테 사과하라고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기준이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한 거 알기는 해요?”

“네. 아까는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죽을죄를 졌습니다.”

“그렇다고 죽을죄까지야....., 알았어요. 이제 괜찮으니 고개 들어요.”

하지만 기준은 얼굴이 발개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여자가 우쿨렐레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왜 그렇게 날을 세우고 살아요. 그래봤자 본인만 아플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쪽 이름은 모르지만....., 전에 저랑 여러 번 마주쳤었죠? 언젠가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기준은 여전히 바닥에 눈길을 떨군 채 여자의 말을 조용히 듣기만 했다.

“다리 때문에 그래요?”

“.....”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다쳤어요.”

그 말을 한 직후 기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여자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다. 꼭 그래야만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다.

“제작년 대학 춘계리그 준결승 때였어요. 우리가 2대 1로 리드한 채 후반전을 맞이했죠. 그런데 후반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헤딩 경합을 위해 점프를 했는데 착지 도중 수비수와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균형을 잃어 무릎이 그대로 바닥을 내리찍고 말았죠. 순간 무릎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참고 뛰었어요. 저에게 모처럼 찾아온 선발 출장이었거든요.”

갑자기 둘리가 짓는 바람에 하던 이야기를 멈췄다. 벤치 뒤 수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놀란 눈치였다. 여자는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 씯! 하고 주의를 주고는 둘리의 목덜미를 간질여 주었다. 기준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뛰는 것은 여의치 않았고 숨마저 가빠왔어요. 결국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라커룸에서 소염 스프레이와 아이싱으로 긴급 처치를 하는데 트레이너 코치님께서 제 무릎을 유심히 살피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코치님께 괜찮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코치님의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뒤이어 무릎이 완전히 뒤틀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슨 소리하는 거냐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사실 그때 걷기조차 힘들 만큼 아팠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억지를 부렸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모르게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기준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가슴 한편이 땡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여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기준이 마저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

“코치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대퇴경부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후 지금까지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기 위

해 몇 차례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보다시피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게다가 지긋지긋한 수술을 또 받아야 할 처지이고요. 얼마 전 담당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태연하게 웃으면서요. 기준씨, 아직도 축구에 미련 못 버린 거야?”

“사람들은 남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손에 쥐고 흔들죠.”

“조금 전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마음에 그만 담아 두세요.”

“.....”

“상심이 컸겠네요.”

“그럼요. 축구는 저에게 전부였으니까요.”

“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져보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과 자신의 전부였던 무언가를 잃는 것, 둘 다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기 그런데……,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한눈에 보기에요 제가 누나인 것 같은데요.”

여자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 올려 웃으며 입고 있던 트레이닝 점퍼를 여몄다. 그리고는 다시 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까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죠?”

“그렇게 큰 소리로 악마야 물렸거라, 외치는데 못 들었을 리가요.”

기준은 여자가 자신에게 향한 비난의 말에도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칠 수 있는 여유가 놀라웠다.

“그런데도 괜찮아요?”

“설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에잇! 길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라.’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예전의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내게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들 떠올리며 살 필요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을 모두 상쇄시켜줄 단 하나의 기억이, 단 한 명의 사람이 더 중요하죠. 전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단 하나의 기억, 단 한 명의 사람……. 기준은 방금 여자가 한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잠깐만요.”

여자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메고 있던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더니 기준의 앞에 펼쳤다.

“이건…….”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은 잘 마른 세 잎 클로버였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오랜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공원에서 가끔 마주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3~4학년쯤 되려나. 근데 얼마 전 그 아이가 이걸 저한테 줬어요. 네 잎 클로버를 꼭 찾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네 잎 클로버가 아니라 세 잎 클로버였군요.”

“네. 흔하고 흔한 세 잎 클로버. 꽃말이 ‘행복’이래요. 알 것 같아요. 왜 행복이라는 꽃말이 붙었는지.”

여자는 다시 책장 사이에 세 잎 클로버를 고이 넣은 다음 책을 덮었다. 기준은 웬지 모르게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실은 저, 오래전부터 누나 지켜봤었어요. 처음엔 조금 신기한 마음에, 나중에엔 무엇이 누나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보기도 했고요.”

“알고 있었어요.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뒤를 졸졸 따라오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자는 이를 훤히 드러내며 혼자 또 시원하게 웃었다.

“죄송해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일부러 나서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혹 일부러 행복한 척, 당당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제 외모 때문에, 제가 가진 장애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드는 게 싫었어요. 선입견을 가진 누군가가 저를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도 싫었구요. 그래서 제 자신을 더 밖으로 드러내고 싶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요.”

여자는 쑥스러운 듯 살짝 웃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누나는,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심술이 났나 봐요.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여자는 기준의 말에 다시 한번 지그시 웃음을 내보였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물었다.

“기준이에요. 윤기준.”

여자가 기준의 이름을 한 글자씩 끊어서 나직하게 발음하더니 다시 물었다.

“제가 이렇게 웃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준은 여자의 물음에 온몸이 굳는 것 같았다.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이제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내가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한때가요. 그 후부터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학교도 가지 않았구요. 스스로도 얼굴이 너무 흉측해 보여 한동안 거울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늘 머릿속에 담아 두고 살았으니 얼마나 제 삶이 피폐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여자는 지난날을 회상하는 듯 까맣고 깊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준은 여자의 표정이 너무나 숙연해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위로란 상대방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최소한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을 그토록 비하하고 짓밟아서 도대체 남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요.”

여자는 기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기준은 또다시 시선을 땅으로 떨구었다.

“혹시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바로 그거예요. 보다시피 아주 추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병이죠.”

기준은 여자의 태연함에 가뜩이나 발개진 얼굴이 더 화끈거렸다. 좀처럼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그래도 육체의 병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니까요. 설령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예요. 하지만 자존감에 병이 들어 고름이 차고 썩기 시작하면 종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예전엔 기준씨처럼, 아니 기준씨 보다 더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어요.”

어느새 여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에 비탄이나 애잔함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깨닫게 돼요.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어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수렁으로 내모는 거예요. 전 그게 가슴 아팠어요.”

기준은 윗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여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만큼 얼마든지 망가뜨리고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죠?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인간이란 결국 하찮은 존재라고 하던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망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전 훗날 제가 살아온 시간들에게 떳떳하고 싶어요.”

기준은 눈물이 맺혔던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고여 있던 눈물은 그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쉽게 깰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눈동자에서 느껴졌다.

“기준씨, 하루라도 빨리 그 권리를 포기하세요. 스스로를 망칠 권리 말예요.”

기준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건넨 그 말이 뇌리 깊숙이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준은 결국 수술을 받았고 한 달여 만에 깃스를 풀었다. 또다시 지나긴 재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남들처럼 걷기엔 당연히 아직 무리였으나 이전과 다르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부쩍 더워진 어느 토요일 저녁, 기준은 목발을 짚고서 오랜만에 호수공원으로 발걸음을 했다. 수술 후 한 번도 찾지 않았으니 공원에 들른 것도 역시 한 달 만이었는데 그 사이 배롱나무꽃이 만개한 공원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공원 입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앰프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요란한 소리에 저절로 귀가 쫓긋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호수 오른쪽에 있는 반원형의 노천 광장 쪽이었다. 이윽고 도착한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마다 구민들을 위해 열리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기준은 앉아서 설 겸 사람들 틈에 끼 잠시 감상하기로 했다.

음악회는 인근 고등학교 관악 합주부 학생들의 클래식 연주로 막이 올랐다. 그다음으로 중년 여성들로 이루어진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공연과 턱수염이 인상적인 백발 노신사의 색소폰 연주, 발달 장애인들의 절도 있는 검도 시범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기준은 무대에 선 참가자 모두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열정과 희열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그들은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어느 누구도 수줍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미숙함에 동요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충분히 만끽하며 순간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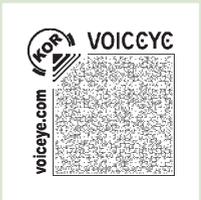
음악회는 계속되었으나 집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기준은 그만 일어나야 했다. 깃스를 풀자마자 아들이 사라졌으니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했다.

뒤돌아서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낮익은 여자 한 명이 무대 한가운데 놓인 의자로 성

큼성큼 걸어가 앉았다.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던 여자는 짙막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숨을 한 차례 내쉬 뒤 우쿨렐레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준비한 첫 곡은 ‘Happy bubble’이었다. 여자는 못 본 사이 숨씨가 많이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끄러운 연주에 자신의 고운 목소리까지 더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준은 목발을 짚고 선 채로 흐뭇하게 무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자의 연주와 노래와 표정을 감상하며 있는 힘껏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기준은 자기도 모르게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

기준은 생각했다. 여자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 역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아직은 많이 초조한 게 사실이지만 기준은 그날을 기다려보기로, 아니 그날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여자가 양코르를 유도하더니 세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기봉의 승용차가 보이자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기봉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장수영 「여인들의 수다클럽」 중에서



## 장수영

저는 백일도 지나지 않아서 열병으로 인해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지만 심신이 지쳐 집으로 돌아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립생활 훈련을 하면서 그 중에서 글 쓰는 일을 여러 모임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글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실로암문학상에 가작으로 뽑혀 더 넓은 곳에 도전하고 싶어서 서울시인협회에 가입했습니다. 5년 동안 활동하다가 등단하게 되고 등단 기념으로 시집『선물』을 펴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와 소설을 계속 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칼럼도 쓸 것입니다. 제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여인들의 수다클럽

장수영

대로변에 위치한 카페 앞 간판에 여인들의 수다클럽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긴 문이 옆으로 짝 열리는 카페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6개 있었다, 그 중 창가 쪽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었다. 카페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유럽풍의 조명이 은은하며 고급스러운 장식이 아름다웠다. 뭔지 모를 아늑함이 느껴지는 편안하고 색다른 분위기였다. 카페 주인장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다. 생김새는 일반 사람과 같아 보였으나 내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테이블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중년의 귀부인이다. 정장 차림의 아주 멋진 여인이 카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말이다. 그날도 그녀는 두꺼운 책을 읽다 그녀들을 맞이했다. 전동휠체어를 탄 엉뚱한 미애, 비장애인 한 성질하는 해정, 목발을 짚은 온리 긍정 해영, 수동휠체어를 탄 덜렁이 수정 전동휠체어를 탄 한 푼뚱한 미숙 5인방이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서 책을 읽다가 그녀들을 바라보며 전동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다섯 분 모두 일행이신가요? 손님.” 미애는 멍쩍은 마음으로 말을 했다.

“네... 일행 맞아요. 좀 많죠.” 카페 주인장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문은 이따 다 하실 건가요?”미애는 살짝 미소 띠며 말했다.

“네. 저... 저번에 쿠키 서비스로 주시던데 좀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 여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하시면 됩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쿠키 드릴게요.” 이렇게 미애 일행에게 말하며 카운터로 돌아가

쿠키를 준비했다. 카페안쪽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오인방은 자리 잡았다. 자리에 앉자 수정은 카페 안을 돌아보다 기분 좋아하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좋은데 여기 어떻게 발견했어? 우리 모임장소 여기로 할까? 어때? 미애야”

“글쎄 여기는 나만의 쉬는 공간이라서...” 미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었다. 수정은 미애의 말에 토달며 화를 내듯 말을 이었다.

“여기 전세 냈냐. 그런 소리 하지마야 여기는 공동의 공간이야 그건 알고 있겠지.”

미숙은 수정의 말에 동의하는 듯 중재하며 말했다.

“그건 수정이 말이 맞아야. 미애 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그는 공공장소어야.” 미애는 약간 기죽은 듯이 말을 이었다.

“그래 니들 말이 맞긴 맞는데 그렇게 화 낼 일은 아니잖아. 아! 우리 콜택시 잡아야 하지 않아요? 수정이 너 얘기 데리러 간다며... 빨리 콜 잡아. 지금 콜택시가 아니야. 로또야! 로또야! 로또! 아! 나도 콜 잡아야 된다. 나 강의가 있다. 빨리 콜 잡자! 미숙아, 넌 콜 안 잡아?”

“나 사실 두 달 전에 이 근처에 이사 왔당께. 난 굴러가도 돼야. 히히” 미숙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이사소식을 전했다. 수정은 장난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사했으면 집들이를 해야지야. 집들이 언제 할꺼? 히히”

“아따! 너 왜 그러냐! 나 그냥 이대로 살게 냅둬야?” 미숙은 수정을 보고 살짝 윈크를 했다. 미숙을 뻔 세 사람은 각자 핸드폰을 꺼내 콜택시 번호를 찾는다. 콜택시 번호를 누르는데 계속 통화중. 그러다 미애가 먼저 상담원이 연결되어 콜을 접수하고 수정 해영 순으로 콜이 접수 되었다. “대기자가 많아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상담원의 말에 모두 한참을 기다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정은 머리끝까지 짜증이 났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따 콜 되게 접수 안 되네. 이게 콜이 뭐여? 으따! 짜증 난그. 이를 어쩔데! 올 아들 어떻게 데리러 간다냐. 오늘 오전반인데 선생님한테 빨리 연락해야 쓰것네” 수정은 바빠 핸드폰에서 어린이집 선생님 번호를 찾아 연락처를 뒤진다.

“아따! 성질나나게 연락처도 안 찾아지네. 아따! 이제 찾았네.” 선생님 번호를 누르며

번호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 지가 외출 나왔는디 지가 고 시간까지 못가겠는디 우리 아들 좀 께ㄷ만 더 텔고 있으믄 좋겠는디 좀 봐주심 안돼겠쓰라?” 선생님은 주말에 약속이 있는 듯 했다. 그래서 난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요. 휴우 그럼 어머님 2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수정은 한숨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지라 지가 못가믄 애기 아부지라도 보내지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수정아 너 남편이 집에 있어? 우리 남편도 집에 있을까? 나도 데려다 주라 해야겠다.”

미애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해정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화를 버럭 내버렸다.

“에이그! 꼴을 잡고 난리여! 미애, 너땀에 진짜 못살겠다! 수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너 남편한테 애를 맞기면 되잖아! 가뜩이나 화나 죽겠구만 너희까지 보텔래?” 해영은 화난 해정을 달래며 말을 이었다.

“참아라. 참아. 어찌겠어. 한 명은 건망증에 한 명은 엉뚱녀에.... 네가 참아라. 참아. 근데 무슨 일로 화났어? 얘기해봐.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될지 모르잖아.” 미숙은 자신들 자리를 보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 “잠깐!! 우리가 차를 시켰나? 기억이 없다.”

“아직 안 시켰는데... 그럼 차 시키고 예기하자.” 해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며 친구들에게 친목회 회비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뭘 마실 건지 물어보았다. 수정은 회비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해정에게 건넸다. 미숙은 카푸치노, 미애는 로즈마리 허브티, 해영은 시럽 듬뿍 넣은 카라멜마끼야또, 수정은 휘핑크림 가득 올린 카페모카 등을 해정에게 주문해달라고 부탁했다. 카운터로 가서 음료 주문과 결제를 하고 카페 주인장이 건네 준 쿠키 한 세트를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쿠키를 음미하며 먹고 있었다. 수재 쿠키라 맛이 독특하고 맛도 좋았다. 미애가 왜 더 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정은 해정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까나? 해정아 니 무슨 일 있는겨?” 해정은 힘없이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 기봉씨랑 헤어질까봐.”해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왜 헤어지려고 해? 너희 사이좋았잖아.” 해정은 약간 뜬눈을 들이며 말을 이었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다. 해정은 오랜만에 고교 동창 친구들이랑 주말에 놀러 가려고 했다. 근데 차량이 인원수에 비해 너무 모자랐다. 궁리궁리하다 기봉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승용차를 빌렸다. 기봉은 수정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같이 간다는 이야기에 움추려 들어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의 소심한 성격 탓에 그렇게 보였다. 해정은 그의 마음을 모른 채 친구들과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 생각에 들떠 있었다. 당일 아침 기봉이 집에 가서 차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로 출발했다. 출발한지 한 시간 쯤 갔었다. 그런데 차 뒤에서 뿅 하는 소리가 나서 해정은 많이 놀랐다. 해정 기봉에게 전화를 걸고 울먹이며 접촉사고 났다고. 일단 경찰이랑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무서우니까 얼른 오라고 말했다. 기봉은 걱정되는 목소리로 어디 다친 덴 없냐고 거기 어디냐고 물었다. 해정은 훌쩍훌쩍 우는 목소리로 여기 화순고속도로 갓길이라고 무서우니 빨리 와라고 말했다.

기봉은 금방 콜 불러서 갈 테니 울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말했고 해정이 걱정되어 재빨리 장애인 콜택시 접수를 해 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지연문자는 계속 와서 빨리 잡히지 않았고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다. 그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해정은 짜증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지금 어디야? 왜 금방 온다 해놓고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정말 미안. 내 맘은 이미 거기가 있는데 콜이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연결되는 대로 갈게.”

“지금 나 혼자 여기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떻게든 해서 빨리 와줘~”

“알았어. 재촉해보고 다른 방법도 알아볼게.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봉은 콜

택시를 아무리 재촉해도 대기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예기를 듣고 여기저기 연락해 차를 빌려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한 시간이 흘러 해정에게 전화가 왔다. 기봉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해정은 정말 화가 났지만 기봉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화를 누르고 있었다. 아직도 콜택시 연결 안 됐냐고 벌써 두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기봉은 거기 어떻게 됐냐고 자기도 재촉도 해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 봤는데 못 찾겠다고 말했고 아직 거기 있는 거냐고 물었다. 해정은 다 알면서 기봉의 태도에 답답해졌다. 약간 신경질적으로 지금까지 거기 있겠냐고 여기 화순군 고읍경찰서라고 말했다.

기봉은 미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해정의 걸을 지켜주지 못 함에 안타까워서 한숨 푸욱 쉬며 많이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하고 말했다. 해정은 지치고 힘든 목소리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 기봉의 미안한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이제 좀 괜찮다고 어차피 넘 늦었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힘든데 오지 말라고 말했다. 기봉은 해정의 말에 미안함과 서운함이 교차된 목소리로 나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최대한 빨리 가려 했는데 잘 안된다고 잘 처리 하고 있으라고 콜 연결되는 대로 간다고 말했다. 해정은 살짝 미안함이 있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잘 처리하고 있을 테니 조심하오라고 말했다. 그렇게 또 다시 1시간이 흘러갔다. 기봉의 핸드폰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콜 배차문자가 왔다. 기봉은 이제 해정의 걸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쁘고 반가운 목소리로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시도했고 따르르릉 신호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을 이었다.

“나 지금 택시 연결됐어.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해정은 많이 지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도 다 처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된 거야?”

“응. 가까이에 있으니 금방 와서 탈 수 있을 거야! 많이 힘들 텐데 조금만 기다려.”

“하~!!!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데 강 집에 가면 안 될까?” 기봉은 해정의 말에 약간 서운한 마음으로 뽀르통하게 말을 이었다.

“금방 갈 텐데... 피곤해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고생했는데 근처에 맛집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자.”해정의 마음은 기봉의 마음을 이해할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통명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먹는 것보다 쉬고 싶어. 오빠 올 때까지 길에서 또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행선지를 해정이 네 집으로 변경할 테니 집 근처에서 같이 저녁 먹자. 미안해서 사주고 싶어서 그래.” 해정은 힘들었지만 기봉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으이그~ 알았어. 있다가 집 앞에서 봐.”기봉은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이었다.

“그래. 지금 택시 타니까 금방 갈 거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해정은 많이 지쳐있었지만 기봉과의 오랜만의 데이트라 가슴이 떨렸다. 둘이 만날 장소를 정하기 많이 쉬웠다. 자주 갔던 길가에 서 있는 포장마차였다. 포장마차 안에서 여느 연인처럼 콩냥콩냥 예쁜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포장마차 주인장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달콤했다. 주인장이 둘이 결혼해도 되겠다고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 말에 해정과 기봉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그곳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쪽에 자리 잡고 앉았다. 기봉은 해정에게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아까 정말 놀라고 겁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해주지 못 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진짜 연결이 너무 안 되니까 조바심 나고 힘들더라고...”

“아니야. 어쨌든 오빠 차를 빌려 가서 사고 났는데도 화도 안 내고 날 먼저 걱정해주고 고마웠어. 오빠 상황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두렵고 그래서 짜증만 낸 것 같아서 미안해.”

“아냐.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했어야 하는데.”해정은 기봉의 눈앞에서 검지를 펴 흔들며 말을 이었다.

“오빠는 최선을 다 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제 잊어버리자. 응?”

“그래. 그러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들은 여느 연인들처럼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달달한 분위기에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멀리서 해정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정 어머니는 멀리서 해정을 알아보고 눈을 찌푸리며 질문조로 말을 했다.

“해정이니?” 해정은 흠칫 놀라 기봉에게서 물러서며 약간 말을 더듬었다,

“어. 엄마! 이 시간에 어어쩐 일로?”

“나? 잠깐 아는 사람이 보자고 해서 나왔지. 근데 넌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해?”

“응? 나도 친구가 와서 잠깐 얘기하고 있었어. 이제 들어가려고...”

“니 옆에 있는 이 친구? 친구 누구?” 어머니는 기봉을 아래위로 훑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면서 친구야. 기봉씨, 우리 엄마야. 인사드려.” 해정은 어머니께 기봉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기봉에게 미안하면서도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눈치를 주고 있었다. 기봉은 기분이 나빴지만 자신도 얼떨결에 해정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해정씨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봉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미심쩍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네. 반가워요.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녀도 되나?” 해정은 빨리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어머니 팔짱을 끼고 거의 끌고 가듯 하고 뒤로는 기봉에게 미안하다는 뜻에 손가락으로 브이 표시를 하며 말을 이었다

“엄마. 지금 막 들어가려고 했어. 얼른 들어가자. 기봉씨,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봐요.”

“불편한 몸으로 넘 늦게 다니지 말아요.” 어머니는 들릴 듯 말 듯 해정에게 귓속말로 말을 이었다.

“너 정말 친구인 거 맞지? 난 너 믿는다.” 기봉은 해정 모녀가 팔짱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있었다. 해정의 회상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아주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제. 그 사람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어야. 해정이 너처럼. 그 사람과의 연애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끄러가는 편이었제. 데이트 중에 우연히 그 사람 어머니를 마주쳤고 그 사람은 많이 당황하며 나를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였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제. 그 사람은 미안했던 거였고 나는 또 그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던 거였제. 해정아 내가 너희 만난다고 했을 때 말한 거 기억하냐?”

해정은 미숙이 그때 말했던 걸 기억하며 말을 이었다.

“응. 그때 니가 기봉씨 만나면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일이 있을 거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한 거야?”

“그라제. 내가 걱정했던 것이 그거제. 그라고 지금 니가 할 일은 기봉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제. 이 철딱선아. 헤어질 생각 말고... 알았제?”

해정은 그제야 기봉이 자신을 왜 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철없는 행동이 기봉과 자신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걸 지켜보던 수정은 해정을 달래듯 말을 이었다.

“해정아 기봉씨는 다 이해할 거랑계. 니가 먼저 전화해라. 헐 야그 있다고. 알았제?”

수정의 말을 듣고 해정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다 지켜본 해영은 해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잘 생각했다. 그래야 해정이지. 니 성격 내가 너무 잘 알지. 순간 옥했다가도 금방 풀어지는 그 성격 나도 닮고 싶다. 근데 난 언제 애인이 생기나! 부럽다! 부러워!”

해정은 해영이 어깨에 올린 손을 내려 감싸 안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이구 이 불쌍한 것!! 이제껏 애인하나 못 사귀고 어째야쓰까. 잉! 내가 기봉씨에게 부탁해서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그래주면 좋지 나도 솔로 벗고 싶어야. 근데 나는 잘 생긴 남자로 부탁해.”

수정은 어이없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보며 말을 쏘아 붙였다.

“거기! 둘. 뭐하는 것이여! 아까는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친한 친구 모드냐!”

수정은 한숨을 푸우 내쉬며 신세한탄 하듯 말했다.

“연애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 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인제 갖힌 물고기라고 밥도 안줘야. 내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하는 얘기 다 그렇더라! 남자 하나 쓰잘데기 없어야! 그나저나 나는 뭐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맞선 두 번 보고 지금의 남편 만나 결혼해서 5년째인데 연애감정 한 번도 못 느껴봤시야. 아! 그때 결혼준비기간은 참 좋았지,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야. 나도 가슴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야!” 수정은 급우울 모드가 되어 하늘만 보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는 해영은 얼굴이 빨그레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말을 이었다.

“나도.....”

미애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다.

“글쎄. 나는 지금이나 연애시절이나 똑같던데...” 수정은 그런 미애를 째려보며 말을 이었다. “그건 니가 지금 신혼이니깐 그런 거고야. 쪼께만 지나보랑께. 너도 나 같은 시절이 올거당께.” 수정이가 메시지 도착음이 울리고 확인하는 동안 친구들도 같이 메시지 확인을 했다. 수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따! 징하네. 또 지연문자네. 이놈의 콜은 점심시간이 되면 진짜 안 잡히더라!” 미애는 체념한 듯 말했다.

“콜택시가 그럼 그렇지. 벌써 잡힐 리가 없지. 한두 번 지연문자가 와야 그제서야 배차문자가 오지. 어찌겠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뭐.” 미숙은 미애의 말에 동의 못하겠다는 듯 말을 이었다.

“고건 니 생각이고. 운전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금 오후 5시부터 저녁 콜이 줄어들고 운전기사가 퇴근해 버리면 콜택시가 운전할 사람이 없당께! 그리고 점심시간에 3교대로 점심을 먹기 때문에 콜택시가 더 안 잡힌당께.” 해정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을 이었다.

“5시 이후로는 콜택시를 잡지 말라는 소리네! 이건 말이 않된다! 솔직히 저상버스도 몇 대 없는데 콜택시도 이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돌아 다니냐!”미애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될랑갑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수정은 이야기가 우울 모드 되어가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왜 그러냐!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 가냐? 누가 먼저 시작했어?” 미애는 장난끼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 어쩔래?”

“그럼 너는 콜 아까 문자 오던데 잡았냐?”

“나도 지연 문자다! 아무래도 이놈의 콜이 오래 걸릴려나보다. 하긴 요즘 행사가 많으니...” 수정은 미애와의 장난스런 대화 속에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5년 전 보다는 많이 발전 했스야! 기억 나냐? 어디 갈려고 하면 하루 전에 연락해야 되고 그것도 콜이 없어서 굴러다니던 시절. 그때는 참 길도 안 좋았는데 많이 돌아 댕겼싸야. 그때 나는 수동 안 타고 전동 탔는데 사고가 났어야.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못타야. 나 결혼식 날 기억 나냐? 그때 앰블런스 타고 식당에 들어간 거 나밖에 없을 거당께.

해정은 정말 궁금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왜 앰블런스를 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수정은 지난 일을 설명하듯 말을 이었다.

“그때는 하루 전에 예약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놈의 건방증이 나를 앰블런스 타게 만들었쓰야! 상담원에게 사정해도 안 되더라 원칙이라고. 참 그 원칙 좋아 하면서...”미애는 자신의 결혼식을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보면 난 참 행복했네. 나는 3개월 전에 식당에 들어갈 때 콜택시로 이동했는데. 기사아저씨가 축하한다고 이야기 해줬는데.”

수정은 미애의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격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 니 팔뚝 굵다! 자꾸 엄장 지를래!” 미애는 약간 서운한 마음에 기죽은 듯 말을 이었다.

“내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수정은 미애의 말에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말이 좋게 안 나갔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꼭 집어서 니 사랑을 해야 되겠냐?” 시무룩해진 미애는 수정에게 먼저 사과를 했다. 그래도 속상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그래 미안해 내가 상황 파악을 못했다.” 해정과 미숙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수정과 미애의 말다툼을 막으며 말을 이었다.

“자 자 거기 두 사람 이만 진정하고...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 그만 다투고 우리 화제를 바꾸자. 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때 갑자기 해영이 끼어들며 말을 이었다.

“그럼 우리 연애 이야기하자 나는 모태솔로야. 니들이 나 좀 구제해줘라 나도 연애를 하고 싶어.”

해영을 제외한 친구들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해정이 그녀에게 짝사랑도 안 해봤냐고 물어 보았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을 짝사랑 해봤다고 말했다. 해정은 그녀에게 그럼 과학 선생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련하게 떠올리며 그녀는 수줍어하며 약간 험담하고 젠뜰한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해정은 그녀의 말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그럼 거기에서 유머감각이 있고 노래 잘 하는 사람이면 좋겠지.” 갑자기 미숙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을 이었다.

“거기다가 재력까지 있으면 좋겠지.” 또 미애가 끼어들었다

“거기다가 왕자님이라면 좋겠지? 평민으로 분장한....” 수정은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 고련 사람이 으디 있더냐? 고련 사람은 동화나 소설 속에서나 나오제. 현실엔 고련 사람 없당께. 정신들 차려야! 이 한심이들아!” 미애는 수정의 말에 동의 못하겠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래도 멋지잖아...” 친구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해영은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창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와~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숙은 해영의 허황된 생각을 걱정하며 말했다.

“너 그러다가 평생 연애 못한다!” 해영은 아직도 상상 속에 빠져있는 듯 말을 이었다.

“그래도 멋지잖아. 나는 그런 연애 꿈꾸고 싶다.” 해정은 해영의 상상의 나래에 빠져 있게 놔두고 수정의 콜 배차에 더 관심 있어 보였다.

“그래. 그래. 상상은 자유니깐! 그나저나 콜이 잡혔는지 확인 좀 해봐. 수정이 너 얘기 데리러가야 된다면.” 수정은 해정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고 거의 포기 상태인 듯 말했다. 앞에 앉은 미애에게 물었다.

“아직 안 잡혔어. 문자가 아직 안 왔어. 미애야 너는?” 미애도 문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 왔어.” 해정은 진짜 걱정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쩐다니 이렇게 안 잡혀서 벌써 접수한지 40분인데.” 수정은 거의 포기한 목소리로 체념한 듯 말을 이었다.

“어쩔 수 없지야. 기다리는 수밖에...” 미숙은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는 해영에게 그녀의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냐며 물었고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수줍은 목소리로 현빈 같은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정은 그녀가 한심하다는 듯 타박하며 말을 이었다.

“에라! 이 인간아. 넌 눈이 무지하게 높아분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지야. 니 자신을 알라고... 넌 니 자신을 너무 몰라야.”

해영은 자신의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어째서 이정도면 이쁘지!” 친구들 모두가 공감이 안 가고 한심하다는 듯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다. 해정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말만 하는 해영에게 일침을 놓았다. “야! 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넌 솔로로 한 20년 더 살아봐.

애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미숙은 해정의 말이 약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말투로 20년은 좀 너무한 거라고 20년 후면 너 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해영은 잠깐 생각하다 한 50대쯤이라고 말했다. 이때 미애는 장난끼 어린 목소리로 “그 때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지세요. 해영님”이라고 말했다. 해영은 미애의 장난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50대 까지 남자를 못 사귀는 거냐고 그러느니 수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때 미숙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정리하고 해영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야기를 이끌었다.

“자자 여담은 그만하고, 애가 연애를 못해 봤자나. 누가 연애 이야기 좀 해줘라. 미애야! 너 이야기 좀 해줘라.”

미애는 알았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머리를 그적이며 그녀의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말했다.

“내 남편 처음 만났을 때? 그러지 뭐. 5년 전에 어떤 교회의 선교 단체에서 단체로 놀러간 적이 있었어. 그때 얼굴이 하얀 사내가 쓱 지나 가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따라 갔지. 그런데 너무 잘 생긴 거야.”

미애의 얘기에 친구들 모두 기막혀 하며 야유를 보냈다. 수정은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 하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 눈에는 잘 생겼다고 말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수정은 짙신도 다 짝이 있듯 제 눈에 안경이니 뭐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모두 미애 이야기에 집중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아. 잘 생긴 사람이었다까지.. 그래서 말을 걸었지. 궁금하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니 더 내 맘에 쏙 들어오더라. 근대 내가 진짜 반했던 건 그 미소였지. 씨익 웃을 때 드러나는 이가 좋았어. 하얀 이가. 마치 최민수가 영화에서 총을 겨누고 웃던 그 웃음! 아직도 기억나! 내 스타일이야!!!!”

정준하와 비슷하게 말하는 미애를 보고 너무 느끼해 친구들 모두가 그녀를 멀리했다.

각자의 핸드폰에서 미애의 연락처를 지우려 하고 수정을 포함한 세 사람은 옆 테이블로 옮기려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미애는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물었고 수정은 장난 섞인 목소리로 대체 누구신데 우리에게 말을 거시냐고 말했다. 미애는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자기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이때 미숙이 미애의 표정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친구들을 설득해서 다시 제 자리로 옮겨왔다. 그리고 미숙은 미애에게 친구들이 가끔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미애 네가 하도 엉뚱하고 사차원 같아 그런 거라고 말했다. 미애는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었다. 이때 수정이 상황을 정리하는 듯이 말을 이었다.

“자자 그만 하고 자꾸 옆길로 빠지네. 이제 해정이 이야기를 들어 볼까?”

해정은 갑자기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자 당황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나며 다들 알고 있지 않냐며 말했다. 수정은 강조 하듯이 말을 이었다.

“그러니깐 우리한테 아직 못한 이야기...” 해정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 그런 거 없는데? 난 다 이야기 해줬는데?”

이때 해영은 장난스런 말투로 잘 생각해보라고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해정은 잠시 생각하다 기억나는 게 있다는 듯이 좀 뜬금없이 말을 이었다.

“음 하나 있긴 한 데... 몇 달 전에 산으로 놀러 갔어. 산 공기도 마시고 도시락도 사가서 먹었지. 그런데 기봉씨가 자꾸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살짝 밀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 하는 거야. 그때 분위기도 좋아서 스킨십 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아 줬다고 화가 났대.” 이때 미애는 진짜 궁금하다는 표정은 대체 뭘 하려고 했냐고 물었고 해정은 살짝 수줍게 웃으며 자기가 모른다고 답했다. 수정은 대화하는 둘을 쳐다보며 귀엽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좋을 때다. 한참 좋을 때야. 너희도 애 하나 낳아봐. 그러면 예전 연애 하던 때가 그리울 거야.” 이때 미애가 끼어들며 자기는 아직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은 미애

의 말에 토 달며 말을 이었다. “넌 아직 신혼이고 난 결혼 5년 차고 애가 있는데 너랑 같냐?” 미애는 자기도 애 낳을 거라고 답했다. 그러자 수정은 애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겠냐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냐고 답답해하며 말했다. 미애는 수정을 바라보고 황새가 물어다 주는 거 아니냐며 말했고 해정은 미애를 바라보고 어른들이 다리 아래서 주워 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걸 지켜본 수정은 미애와 해정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말을 이었다.

“이런 바보들. 이래서는 안 되겠당께. 우리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자.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미애는 다시 수정과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그러자 수정은 답답하다는 듯이 아까 이야기 했다고 중매로 맺어졌다고 말했다. 미애는 그래도 결혼준비 기간 한 달 동안은 연애 감정 느꼈을 것 아니냐고 그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수정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약간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는 서로 대면 대면했었지야. 첫 맞선에 실패하고 2번째로 만난 사람이었제. 그런데 첫인상이 무지하게 좋았당께. 혼남은 아니었지만서도 서글서글한 외모에 등치는 짝끔 있는 편이었당께.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제.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었던지 다음날 연락을 하더라니께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제. 중매라 한 달 만에 식을 올리긴 했지만 그 한 달 동안이 내한테는 연애였을까나?” 해정은 수정을 보며 답답하다는 듯이 그럼 그게 연애지 연애라는 게 별거 있냐고 남녀가 만나서 좋은 감정 느끼는 게 연애라고 말했고 수정은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은 결혼하고 애 낳고 퍼져서 남편도 뺏도 아녀. 결혼하고 나서 나의 환상은 사라졌지야. 한 달 동안 결혼 준비 하면서 연애 하던 때가 나도 그립긴 해야.” 해정은 수정의 이야기를 듣고 결혼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녀들의 대화는 이러했다. 해정의 결혼하면 그렇게 달라지냐는 질문으로.....

“그럼! 많이 달라지지...”

“어떤 점이 그렇게 달라져? 나도 결혼 생각 하고 있거든. 기봉씨와 한번 살아 볼까 해서...”

“결혼하면 연애와는 다르지야. 너가 연애 하면서 못 보던 것들이 다 보이기도 하고 너가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겠지야.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까지 나의 결혼생활로는 그래.

“겁난다...” 이때 미애가 끼어들며 말을 이었다. 해정과 미애의 말다툼은 이리했다.

“난 아직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남편도 잘 해주고... 잘 때도 한번씩 보면 이뻐...”

“너한테 안 물어봤어. 잠깐 나와 있어봐. 니 이야기는 안 궁금해요! 미애 이야기는 빼고 듣기로 하겠어!” “야! 너! 나중에 결혼 하고 나한테 이야기 안 들어서 후회 한다! 기집애! 기껏 이야기 해줬더니 흥!”

“니가 하도 엉뚱하니깐 이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엉뚱해? 우리 남편은 귀엽다고 하던데?”

“그건 니 남편이 콩깍지가 씌인 거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 수정은 싸우는 둘을 보며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니깐 싸움은 이제 그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정에게 문자가 날아왔고 핸드폰에 문자를 확인한 수정은 콜 잡혔다고 친구들도 빨리 확인해보라고 말하고 미애와 해영도 문자를 확인해 보고 미애는 10분 거리에 잡혔고 해영도 목발을 들면서 어깨에 끼며 5분 거리에 잡혔다고 먼저 나간다고 말하고 일어섰다. 수정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해정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는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당께. 해정아 나 좀 도와줘야! 휠체어 좀 밖에 나갈 때까지 밀어주면 안 될까? 잉?” 해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쿨하게 말했다.

“알았어. 기봉씨 밀던 실력 한번 발휘해 보지 뭐. 미애야 안 나가?”

미애는 자리를 정리하며 아쉬운 듯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며 말을 이었다.

“알았어. 다들 가는 분위기인데 나도 나가서 기다리지 뭐.” 수정은 미애를 달래는 듯 이 말을 이었다.

“아따 다음에 또 모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게 나아야! 내가 카톡으로 연락할게, 알겠제?” 미숙을 제외한 모두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에서 수정을 밀고 해정, 미애, 해영 손으로 나갔고 수정을 도와주고 다시 카페로 돌아온 해정은 미숙 앞에 앉았다.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런 미숙이 해정은 고맙고 기봉을 다시 만날 용기를 얻었다. 미숙과 헤어진 후 해정은 잠시 앉아서 생각하다 기봉에게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시도했다. 뭔가 결심했다는 듯이.....

“기봉씨 지금 시간돼? 우리 만날까?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기봉도 해정의 통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어디로 데리러 가면 되냐고 물었다. 해정은 지금 있는 카페 이름을 알려주었고 기봉은 내비로 그 이름을 찍어 달려갔다. 해정은 카페 앞에서 기다렸고 멀리서 기봉의 승용차가 보이자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기봉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의 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올라탔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 강경화

요즘은 어디가나 발열체크를 하게 된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새로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온을 잴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이 주신 이름 석 자보다 36.5도로 인식된다는 것, 글을 쓰면서도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작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뜻깊은 사업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숫자로 느끼는 체온이 아니라 살갓을 느낄 수 있는 체온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 김경원

저에게 글은 저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아픔의 시간을 글로 표현하여 왔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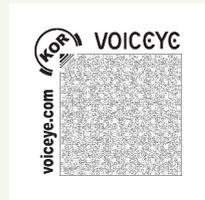
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에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가졌고 달리보이는 이 세상을 화려한 기교없이 제 마음으로 온전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 김형국

글을 통해 나의 삶을 그리며,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행복합니다. 또한, 광주지역에서 문학을 사랑하고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글을 읽는 이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 남영화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나 기쁜 순간들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만 보였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참 고운 시간이었음을 깨닫곤 합니다. 저 혼자 쓰고 이야기하던 글이 누군가에게겐 어떻게 비칠지 심히 민망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고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노대전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 사는 내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고난이와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더 길고 튼튼하게 이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싶다. 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기종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를 쉬고 있는데 하루가 길고 답답하였습니다.

김밥과 라면에 계맛살을 넣어 요리 하면서 시가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길거리의 다양한 마스크를 보면서 머릿속에 시가 스쳐 갔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 박영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생의 모든 나날 동안 누군가의 삶에 가려진 면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뜻하지 않은 제안으로 작품집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읽힌다는 게 여전히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책이 탄생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진희

제 마음의 조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귀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동화의 그 아이가 그렇듯 모든 행동이 이해되고 소중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아니던 모두의 행동은 하나의 행동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짧은 동화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수영

장애라는 말은 불치가 아닙니다. 불편함일 뿐입니다. 세상이란 곳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을 그들은 잘 압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꿈꿉니다.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오늘도 나는 글을 씁니다.

### 정향기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집에 참여 작가 10인의 마음이 뭉쳐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사람간의 거리두기는 하되 마음은 뽀짝뽀짝 엉겨 살았으면 합니다.



## 희망과 치유의 문학

강경호

(문학평론가, 《시와사람》 발행인)

2020 지역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장애인 문학인에게는 오랜 가뭄 속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다. 필자는 장애인문학의 열악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번 사업은 참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장애인 문학축전과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신 광주문화재단에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흔히 기독교문학, 불교문학, 또는 공무원문학, 장애인문학이라고 불리우지만 구분지어서 말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문학(文學)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장애인문학이라고 부른다.

장애인문학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거나 반드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와 관련된 문학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의 삶을 글로써 형상화시켰다면 이러한 작품도 장애인문학의 범주에 들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광주 장애인 문학인은 10명이다. 시, 시조, 동화, 수필 각각 1명씩 그리고 소설이 2명이다. 이 분들의 작품은 시조시인으로 각광받는 강경화 시인도 있지만 대부분 소박하게 자신의 문학을 일구고 있는 작가들이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시인, 소설가 등 문인들의 작품도 결핍, 즉 장애를 극복하고자 작품을 쓴다. 육체적인 장애만이 장애가 아닌 까닭에 모든 작가들 또는 자신의 결핍, 또는 우리 사회가 지닌 결핍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 치유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작품들 또한 작가들의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공감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시적 상상력의 참신함과 긍정의 시각

강경화 시인은 앞에서 밝혔듯이 유능한 시조시인이다. 일반 작가들처럼 장애의 굴레를 벗어나 사물의 진실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탁월한 비유를 통해 아주 절제된 언어로 사물의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형상화시킨다. 특히 그의 시편들은 대부분 의인화법을 구사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능숙하다. 마침 「자벌레」, 「도마」는 필자의 시 제목이기도 한데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필자는 「자벌레」에서 “헛벗은 지구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한다”고 했지만 강경화 시인은 “팍팍했을 웅이의 시간까지 읽으며 간다”고 했고, 필자는 「도마」에서 “은 땀으로 칼을 맞받으면서도 식탁에 더운 밥을 올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강경화 시인은 “눈물을 받는 일은/상처 하나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보았듯이 강경화 시인은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개성있는 작품을 형상화시키는 상상력이 기존 시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자벌레」를 본다.

참나무의 까마득한 우듬질 향해 자벌레 간다//팍팍했을 웅이의 시간까지 읽으며 간다//마음에  
달은 글귀에 그어지는 초록색 밑줄//생각이 필요할 땐 서슴없이 멈춰 서서//더듬더듬/하늘 한번/  
바람 한번/보고 간다//끝까지 다 읽으려면/아직도/한참이다 -강경화, 「자벌레」 전문

몸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길을 가는 자벌레가 참나무 줄기를 기어가면서 “팍팍했을 웅이의 시간까지 읽으며 간다”고 한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 것처럼 자벌레가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음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벌레가 기어가는 참나무를 하나의 ‘책’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더듬더듬/하늘 한번/바람 한번/보고 간다”고 한다. 쉽지 않는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며 간다. 자벌레의 길이 인간이 가는 길과 다름이 아님을 묘파하고 있다. 이처럼 강경화의 시편들은 깊고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하찮은 자벌레의 걸음에서 참신하고 개성있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형상화시켰다.

### 따스한 인정과 장애인인 삶

김경원의 시편들은 거개가 타자를 따스하게 끌어안는 훈훈함이 느껴진다. 그의 작품들은 언어를 비틀거나 꼬지 않고 정직하게 서술하는 형식이다. 무기교의 기교가 오히려 담백한 정서를 자아내며 작품의 진정성을 지녀 설득력을 갖는다. 「12월의 기도」에서 눈 내리는

것을 하늘이 주는 축복으로 인식하여 “모두가 행복하길.../오늘밤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것과 「불의 의미」에서 “밝음과 따뜻함을 주는/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다고 한다. 「너는 나에게」에서도 “너는 그 보석 중에/가장 존귀한 보석”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의 시편들은 나 아닌 타자에게조차 따스한 인정의 손길을 보낸다.

석공이 나에게 그랬어//세상엔 쓸모없는/존재는 없다고//하찮은 저 돌도 언젠가는/귀하게 쓰여 질 거라고//석공이 너의 못난 부분을 깎아내어/석공이 너의 못난 부분을 다듬어내어/예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있을 거라고//석공이 너에게 그랬듯/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쓸모없고 보잘 것 없는/존재는 없어...

-김경원, 「석공이 나에게」 전문

석공이 화자에게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고 한다. 석공이 돌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듯이 “석공이 너의 못난 부분을 다듬어내어/예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쓸모없고 보잘 것 없는/존재는 없”다고 한 것에서 조금 유추하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장애인들 모두가 쓸모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니 절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된다.

김형국 시인은 목회자이며 장애인 인권교육활동가여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물이 가득찬 컵 앞에서/작아집니다.//한 손으로 들 수 없고/두 손으로도 들 수 없어서/고개를 숙이며/온 힘을 다하여 대합니다.//어쩌면./평생 움츠리며/살아갈 줄을 모르겠습니다.

-김형국, 「물컵」 전문

누구나 쉽게 물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들 중에는 “물이 가득찬 컵 앞에서/작아”지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손으로 들 수 없고/두 손으로도 들 수 없어서/고개를 숙이며/온 힘을 다하여 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형국 시인의 경우 장애가 심해 물이 가득찬 컵 앞에서 찢찢매는가 싶다. 흔히 장애는 그저 ‘다름’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쩌면./평생 움츠리며/살아갈 줄을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시인의 개인적인 체험을 그린 작품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아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작품은 김형국 시인의 삶의 한 면을 보는 듯하지만,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밖에도 김형국 시인은 「사람입니다」에서 “모습이 다를 뿐./모습이 다르다고 하여/장애인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권리 찾기」에서는 화자가 초등학교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러 갔다가 학생 하나가 “말이 이상하다”고 하는 말에서 “이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다를 뿐”이라고 말하며 장애인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임을 인식시킨다.

정향기의 작품 또한 장애인의 삶을 긍정으로 인식하려 하지만 그러나 자의식 속에서 남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서 장애인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다.

언제인가/거울에 비친/뒤틀어진 내 모습이/너무 싫어 깨어버린/허상의 잔재가 꿈틀댄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장애인/또 하나의 내 이름이다./그래서 더 밝은 척/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지도./아니 그랬었다.//어쩔 숨기고 싶었던/장애가 날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그렇던지도  
 모르겠다.

-정향기, 「어떤 하루」 중에서

뇌병변 장애인이라면 한번쯤 “거울에 비친/뒤틀어진 내 모습이/너무 싫어 깨어” 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은 그저 ‘다름’일뿐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생각도 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밝은 척/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숨기고 싶었던/장애가 날 여기까지 오게 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정향기 시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인의 솔직한 고백에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아픔은 「아버지의 등」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업혀 다녔던 기억과 얼마전 다시 아버지의 등에 업혀 옛날보다 작아진 아버지의 등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맛있는 상추쌈 한 상이라도/푸짐하게 차려”드렸을텐데 그렇지 못한 까닭에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장애인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 장애를 넘는 시인의 상상력

남영화와 박기중 시인의 시편은 장애의 그늘이 드리워있지 않다. 장애인이라고 반드시 장애와 관련된 작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래 전에 남영화 시인의 『내 마음의 에밀레종』이라는 시집에 해설을 쓴 것 같다. 그때 그의 시편들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시작품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나른한 빨래들이 휘날리고/귀하게 속삭이는 눈빛/어떤 마음을 더 보이리이까//괜찮아/  
믿을게/당연한 침묵으로/살아가는 틈//계절이 지나다니고/섬세하게 그려놓은 길목에서//해질녘  
그대가 그리워하는 것은/두 팔 벌려 안아주는 품/아무것도 아닌 척 할 수 있으리이까  
-남영화, 「사소한 사랑」 전문

매우 짧은 작품이지만 구사하는 시 언어들이 예사롭지 않다. “귀하게 속삭이는 눈빛” 같은 경우 흔히 ‘속삭임’은 음성언어를 통해 작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만 화자는 시각언어인 ‘눈빛’으로 “귀하게 속삭”인다고 공감각 이미지를 통해 “어떤 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나른한 빨래들이 휘날리”는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속삭이는”이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만나면서 대상을 더욱 참신하고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이 돋보이는 것은 말하듯 구어체로 “괜찮아/믿을게”라고 형상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리움의 대상인 그를 향해 믿음을 갖는 표현으로 언어의 진정성을 통해 신뢰를 준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다니고/섬세하게 그려놓은 길목”이라는 시적 표현도 이 짧은 작품을 빛나게 하는 대목이다. 계절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현상인 바 계절이 지나간다고 말함으로써 ‘시간’이라는 ‘계절’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 하루 중에서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그리운 시간은 저녁 무렵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화자는 “해질녘 그대가 그리워하는 것은/두 팔 벌려 안아주는 품”이라며 “안아주는 품”이라는 감각적인 촉각적인 이미지가 시적 대상에게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전해준다.

이밖에도 남영화 시인의 그리움을 형상시킨 「마음결」에서 “그림자 길게 늘어지면/방마다 환히 불을 켜 놓고”, 「눈물의 동백꽃」에서 “결에 있어 위로가 되는/착한 사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박기중 시인은 다섯 권의 시집을 펴낸 문학 전공자이다. 그의 작품은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행을 끊어서 메시지를 톡 던지거나 의인화법을 즐겨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여준다.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어디로 굴러가고 있을까?/아파트 근처와 공원 쪽을 돌고 있구나/시원한 바람은 마음이 탁, 트이고/하얀 구름은 자전거바퀴를 따라 온다/날카로운 유리파편은 조심해야 돼/바퀴가 뺑구라면 굴러 갈수 없잖아/둥글 둥글 굴러가는 두 바퀴/행복을 만드는 두 바퀴의 사랑/오늘도 자전거는 쉬지 않고 달린다./피곤한 하루 먼 길을 돌았더니 지쳤군/길잡이 자전거  
-박기중, 「자전거 바퀴」 전문

자전거는 산에서 내려오는 돌처럼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화자는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라고 말하며 “어디로 굴러가”는지를 궁금해 한다. 독자들은 박기종 시인의 시를 읽으며 동선을 움직인다. “아파트 근처와 공원 쪽을 돌고” 있다. 그러자 “시원한 바람은 마음이 탁, 트이고/하얀 구름은 자전거바퀴를 따라 온다” 이쯤에 이르면 독자들은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왜 하얀 구름이 자전거 바퀴를 따라가는가. 그것은 자전거가 하얀 구름 아래에서 경쾌하게 질주한다는 시적 표현이다. 그런데 화자는 “날카로운 유리파편은 조심해야 돼/바퀴가 빵구나면 굴러 갈수 없”다고 독백을 한다. 바퀴는 “둥글 둥글 굴러가”는 것이어서 당연히 둥글다. 그렇기 때문에 굴러갈 수가 있다. 이쯤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난다. “행복을 만드는 두 바퀴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은 혼자서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화자는 “오늘도 자전거는 쉬지 않고 달린다.”고 노래한다. 길지 않지만 시인은 이 작품에서 ‘사랑’을 ‘자전거 바퀴’로 은유화해 즐겁게 노래한다.

### 장애와 동화적 상상력

동화작가 박진희의 「수정이와 민달팽이」는 ‘달팽이’와 ‘민달팽이’라는 사물을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은유화하여 집이 있는 달팽이거나 민달팽이거나 모두 같은 달팽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모두 같은 ‘사람’임을 깨우쳐 준다.

수정이가 한 말이다. 수정이는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달팽이에게는 집이 없지만 플라스틱 통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 수정이는 작년에 우리친구반과 4학년 3반 교실을 오가며 집이 없는 민달팽이처럼 살았지만 이제 우리 5학년 3반이 튼튼한 달팽이집과 같은 수정이의 친구가 될 것이다.

플라스틱 통을 보고 있는 수정이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돌린 수정이에게 처음으로 눈을 맞추고 빙그레 웃었다. 수정이가 입을 헤, 벌리고 배시시 웃는다.

-박진희, 「수정이와 민달팽이」 중에서

수정이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이다. 5학년이 되었지만 교실 옆에서 쪼그려 앉아있거나 침을 질질 흘리며 냄새를 풍겨 같은 반 아이들이 수정이와 짝꿍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데 지난 주 수정이의 짝꿍이었던 민경이는 수정이를 이해하고 잘 해준다.

그렇지만 나는 수정이와 짝꿍을 할 일주일이 걱정이 된다. 수정이의 책상에 민달팽이가 기어다니는 것이 징그럽다. 수정이는 자신의 처지와 같은 집이 없는 민달팽이를 좋아하는 것이다.

나는 민달팽이가 징그러웠지만 플라스틱 통에서 달팽이와 민달팽이를 키운다. 한 번은 수정이가 결석을 하였다. 자신의 집이기도 한 5학년 3반 교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수정이에게 민달팽이가 되지 말고 수업시간에 사라지지 말라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달팽이와 민달팽이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장애인으로 은유화시켜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는 작가의 상상력이 매우 아름답다.

### 장애와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

수필은 작가 자신의 체험을 고백적으로 쓴 글이다. 또는 자신이 간접체험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된다.

노대전 수필가의 「나는 가족이 보물이다」와 「나는 인생 기술자」 등 2편의 수필은 자신의 장애와 가족사의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대전 수필가는 태어난 지 일년 만에 걸음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다.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1km 이상을 걸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네 명의 형 중에 한 사람이 죽고 집도 가난하여 중형의 권유로 가전제품 수리기술자가 되어 고장난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고쳐주며 살아간다. 이후 결혼도 하게 되고 양돈사업을 해보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아름다운 행복을 얻기까지 많은 난관을 뚫고 극복한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겨낼 힘의 원천은 부모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와 지극 정성하  
보살핌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고비마다 믿고 따라준 천사 같은 아내에게  
어떠한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세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사랑스런 내  
손주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

-노대전, 「나는 인생 기술자」 중에서

한때는 살아가기 위해 아내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며 아이들 교육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노점상을 할 때 단속원에게 쫓겨 짐을 싣다가 퍼는 일을 하루에 여섯 번을 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아내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의 힘이었다고 고백한다. 장애인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노대전 수필가의 삶의 의지가 장애인에게는 물론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커다란 교훈을 준다.

박영진 작가의 소설 「산책」은 제목에 알맞게 한가한 내용이 아니다. 대학에서 춘계리그 때 축구선수로 뛰다가 장애를 가진 기준이 호수공원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여자를 유심히 관찰한다. 여자는 곱사등이처럼 흰 허리, 조금만 세게 쥐어도 부러질 것처럼 가는 다리를 지녀 위태위태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태연하게 공원에서 산책을 한 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담으며 연신 웃는다. 장애를 가졌지만 웃은 여자 기준에게는 더욱 관찰의 대상이었다. 여자와 말을 튼 기준에게 여자는 “왜 그렇게 날을 세우고 살아요. 그래봤자 본인만 아플텐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남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손에 쥐고 흔들죠.” 하며 장애인에게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한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그래도 육체의 병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니까요. 설령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예요. 하지만 자존감에 병이 들어 고통이 차고 썩기 시작하면 종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구요. 저도 예전엔 기준씨처럼, 아니 기준씨 보다 더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어요.”

어느새 여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에 비탄이나 애잔함이 담겨 있지는 않았다.

-박영진, 「산책」 중에서

여자는 손에 클로버 잎을 가지고 다닌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웃는 이유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방식임을 말해준다. 더불어 “육체의 병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기준보다 더 스스로를 괴롭히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자의 웃음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장애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육체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여자가 어쩌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여자를 바라보는 기준 역시 웃음을 웃게 되었으니 누군가를 관찰하는 버릇을 가진 기준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자가 가르쳐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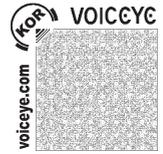
###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과 행복

장수영 작의 소설 「여인들의 수다클럽」은 대로변에 있는 카페의 간판이름이기도 하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즐겨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것은 카페의 여주인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목발을 짚는 이른바 여인 5인방이 가끔 만나 수다를 떠는 곳이다. 이곳에서 장애를 가진 여인들이 그들의 일상을 얘기하며 수다를 떠다. 연애이야기, 남편이야기, 결혼스토리, 집들이 이야기 등을 통해 일상은 물론 장애인들의 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펼친다.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무슨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어서 말 그대로 수다이다. 이 작품에서 주된 이야기를 결혼생활과 연애가 주제이다.

“기봉씨 지금 시간돼? 우리 만날까?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기봉도 해정의 통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어디로 데리러 가면 되냐고 물었다. 해정은 지금 있는 카페 이름을 알려주었고 기봉은 내비로 그 이름을 찍어 달려갔다. 해정은 카페 앞에서 기다렸고 멀리서 기봉의 승용차가 보이자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기봉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의 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올라탔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장수영, 「여인들의 수다클럽」 중에서

수다클럽에서 모두 돌아간 뒤 목발을 짚은 해정은 기봉에게 전화를 해 만나자고 한다. 못 청춘들의 연애처럼 곧바로 차를 몰고 데리러 가겠다는 기봉의 말에 해정은 행복해 한다. 그리고 기봉의 차가 나타나자 마음이 설레인다.

이 작품의 주제나 소재는 모두 여인들의 수다이다. 특별한 메시지가 없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이 만나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세상에 장애 여인들이 다른 청년들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행복임을 전해준다. 목발 장애인 해정 또한 기봉이 차를 몰고 수다클럽카페 앞에 도착하자 차에 오르면서 행복해 한다. 장애인이어도 연애에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미발표 문학작품집



펴 낸 곳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 행 처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전 화 062-670-7400  
편집위원 김용목, 강경호  
담 당 객규호, 이종수, 박수현, 문지혜

표지디자인 정원희  
만 든 곳 다미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로 52 3f. T.070-4137-0103)

발 간 일 자 2020년 12월

본 책자에 기재된 모든 원고 및 사진은 '광주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도용 불가합니다.  
광주문화재단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좌로 338번길 7)



